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심리학석사학위논문

노스탤지어의 내용과 기능의 탐색

2013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성격심리 전공
김 푸 림

노스텔지어의 내용과 기능의 탐색

지도교수 민 경 환

이 논문을 심리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성격심리 전공

김 푸 림

김푸림의 심리학석사 학위论문을 인준함.

2013년 8월

위 원 장

김 청 택

부위원장

이 훈 진

위 원

민 경 환



국 문 초 록

본 연구에서는 노스텔지어의 심리적인 측면들을 탐구하였다. 구체적으로, 노스텔지어의 내용, 촉발인, 그리고 기능에 대하여 탐색하고자 하였으며, 노스텔지어가 긍정적인 심리적 자원으로서 적응 및 성격 변인들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 살펴보았다.

연구 1에서는 노스텔지어의 내용, 촉발인, 그리고 기능에 대하여 탐색적인 연구를 실시하였다. 10세~70세의 다양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하여 노스텔지어 상태 기능 척도(Hepper et al., 2012)와 노스텔지어의 내용과 촉발인 측정 항목들(Wildschut et al., 2006)을 적용해서 탐구한 결과 노스텔지어가 자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서이며 동시에 높은 사회성을 내포하는 정서임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과거에 경험하였던 익숙하거나 낯익은 사건들이 노스텔지어의 주된 촉발인임을 알 수 있었다. 더 나아가, 노스텔지어의 상태기능척도를 구성하는 네 가지 요인인 긍정적 자존감, 긍정적 정서, 사회적 연대성, 그리고 삶의 의미가 노스텔지어의 긍정적 기능을 구성함을 발견하였다. 성별과 연령대에 따라서 노스텔지어의 긍정적 기능이 다르게 경험되는지 탐색해본 결과, 남자가 여자보다 노스텔지어의 ‘긍정적 정서’에서 유의미하게 더 큰 값을 알 수 있었으며, 연령대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연구 2에서는 노스텔지어의 기능을 부정 기능까지 포함시켜 정적 기능과 부정적 기능 모두를 조사하였다. 또한 노스텔지어를 정서 상태로 간주했을 때 어떤 정서 상태인지를 조사하였으며, 노스텔지어의 정서와 정적 기능 및 부정 기능이 성별과 연령대에 따라서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적응 및 성격변인들과 어떤 관련을 갖는지를 살펴 보았다. 더 나아가, 노스텔지어의 긍정적 기능(Hepper et al., 2012)의 정서 조절 역할(Wildschut et al., 2006)을 매개모형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그 결과, 노스텔지어

는 정적 기능이 더 크지만 부정 기능 또한 포함하고 있음을 발견하였으며, 노스텔지어 정서는 혼합정서로서 정적 정서와 부정 정서를 모두 포함하고 있지만 그 크기는 정적 정서, 저각성 부정 정서, 고각성 부정 정서의 순서임을 알 수 있었다. 노스텔지어의 기능과 정서내용은 남녀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10~30세 집단과 31~70세 집단 간에는 나이 많은 집단이 정적 기능도 더 크고, 정적 정서의 정도 또한 더 컸다. 노스텔지어의 기능과 적응 및 성격변인의 관계에서 정적 기능은 외향성, 심리적 안녕감, 삶의 만족도, 그리고 자존감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냄을 살펴볼 수 있었으며, 부정 기능은 외로움, 신경증 성향, 그리고 우울과 정적 상관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맥락에서 노스텔지어의 긍정적 기능의 부정 정서 조절 효과를 살펴본 결과, 외로움이 심리적 안녕감, 삶의 만족도, 그리고 자존감에 대하여 갖는 영향이 노스텔지어의 긍정적 기능에 의하여 매개됨으로써 감소됨을 발견할 수 있었다.

주요어: 노스텔지어, 정적 기능과 부정 기능, 정적 정서와 부정 정서, 적응 및 성격 변인, 노스텔지어의 매개 효과

학 번: 2010-20107

목 차

국문초록	i
서 론	1
연구 1. 노스텔지어의 내용, 촉발인 및 긍정적 기능에 대한 탐색적인 연구...	10
방 법	10
결 과	13
논 의	21
연구 2. 노스텔지어의 경험과 기능에 대한 연구	23
방 법	28
결 과	32
논 의	60
종합논의	66
참고문헌	72
부 록	77
Abstract	89

표 목차

표 1. 노스텔지어 경험 속에서의 ‘나’	14
표 2. 노스텔지어 경험 속에서의 중심	14
표 3. 노스텔지어 경험 속에서의 정서의 변화	15
표 4. 노스텔지어 경험을 불러일으키는 경험	16
표 5. 노스텔지어의 긍정적 기능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18
표 6. 노스텔지어의 긍정적 기능 척도의 네 요인에 대한 성별에 따른 차이 ..	19
표 7. 노스텔지어의 긍정적 기능 척도의 네 요인에 대한 연령대에 따른 차이 ..	20
표 8. 노스텔지어의 긍정적 기능 척도의 네 요인에 대한 평균값 비교 결과 ..	21
표 9. 노스텔지어 경험 속에서의 ‘나’	33
표 10. 노스텔지어 경험 속에서의 중심	33
표 11. 노스텔지어 경험 속에서의 정서의 변화	34
표 12. 노스텔지어 경험의 빈도	34
표 13. 노스텔지어 경험을 불러일으키는 경험	35
표 14. 노스텔지어의 긍정적 기능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37
표 15. 노스텔지어의 정적 기능과 부적 기능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39
표 16. 노스텔지어를 불러일으키는 경험 회상 순간 감정의 요인분석 결과.....	40
표 17. 노스텔지어의 정적 기능과 부적 기능에 대한 성별과 연령대에 따른 차이	41
표 18. 노스텔지어의 정적 기능과 부적 기능에 대한 평균값 비교 결과....	42
표 19. 노스텔지어 관련 정서 척도의 세 요인에 대한 성별과 연령대에 따른 차이	43
표 20. 노스텔지어 관련 정서 척도의 세 요인에 대한 평균비교	44
표 21. 노스텔지어의 네 기능에 대한 성별과 연령대의 차이	45
표 22. 노스텔지어의 긍정적 기능 척도의 요인에 대한 평균값 비교 결과	46

표 23. 노스탤지어 경험 회상 빈도에 대한 연령대와 성별에 따른 차이....	47
표 24. 노스탤지어의 정적 기능, 부적 기능, 그리고 적응 및 성격 변인들의 상관관계.	48
표 25. 노스탤지어를 불러일으키는 경험을 회상할 때 순간의 정적 정서, 고각성 부적 정서, 저각성 부적 정서 그리고 적응 및 성격 변인들의 상관관계	49
표 26. 노스탤지어의 긍정적 기능 네 요인과 적응 및 성격 변인들의 상관관계.....	51
표 27. 외로움, 우울, 심리적 안녕감, 삶의 만족도, 자존감, 외향성, 신경증 성향과 노스탤지어 경험 회상 빈도의 상관관계	51
표 28.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을 통한 매개효과 검증	53
표 29. 삶의 만족도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을 통한 매개효과 검증	56
표 30. 자존감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을 통한 매개효과 검증	59

그림 목차

그림 1. 심리적 안녕감을 위한 다중회귀분석을 통한 매개 모델.....	53
그림 2. 삶의 만족도를 위한 다중회귀분석을 통한 매개 모델.	55
그림 3. 자존감을 위한 다중회귀분석을 통한 매개 모델.	58

서론

노스텔지어의 개념

본 연구는 범문화적으로 존재하고 독특한 기능과 의미를 갖는 심리적 현상인 노스텔지어의 내용과 촉발인 및 기능을 알아보고자 수행되었다. The New Oxford Dictionary of English(1998)에 따르면 노스텔지어는 “과거에 대한 감상적인 그리움”이다. 노스텔지어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인 향수(鄉愁)와 다른 정서로서 어떠한 긍정적 기능을 갖고서 외로움, 성격(외향성, 신경증 성향), 우울증, 심리적 안녕감, 삶의 만족도, 그리고 자존감과의 연관성을 나타내는지 탐구해봄으로써, 노스텔지어의 긍정적인 정서적 기능에 대하여 관찰하고자 한다.

노스텔지어의 어원은 그리스어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nostos와 아픔 또는 고통을 의미하는 algos로 구성되어 문자 그대로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갈망으로 인하여 발생된 고통을 뜻한다(Hepper, Ritchie, Sedikides, & Wildschut, 2012). 노스텔지어의 주제가 담긴 호머(Homer)의 오디세이(The Odyssey)에서 영웅 오디세우스는 트로이 전쟁을 마치고 귀향하는 시간 동안 고향 이타카(Ithaca)와 가족을 그리워하며 노스텔지어를 불러일으키는 기억들이 자신에게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동기를 부여해줄 줄을 느끼게 된다(Sedikides et al., 2008).

이처럼 노스텔지어의 개념은 근본적으로 특별히 가까운 이들과 관련된 기억들을 포함한 과거의 기억들로부터 힘과 동기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인간의 고유한 능력을 담았다(Hepper et al., 2012). 하지만, 17세기와 18세기 동안 노스텔지어는 뇌와

관련된 의료적 또는 신경증적 병으로 개념화되었으며(Sedikides, Wildschut, & Baden, 2004), 19세기말부터 20세기 초반에는 정신적 또는 정신신체적 질병으로 이해되었다(Batcho, 1998). 이와 같은 노스탤지어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는 노스탤지어를 향수(鄉愁)와 동등한 개념으로 고려함으로써 발생되었다고 볼 수 있다(Hepper et al., 2012). 20세기 후반에 이르러 비로소 노스탤지어가 향수와 독립된 고유한 개념으로 이해되기 시작하면서 한 개인의 노스탤지어가 내포하는 과거에 대한 그리움은 고향을 포함할 수는 있지만 고향에 국한된 것이 아님이 주장되었다(Kaplan, 1987). Davis(1979)에 따르면,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따뜻함, 어렸을 적 시절, 옛날 옛적, 그리고 그리움”이란 단어들을 향수보다는 노스탤지어와 더 자주 연관함으로써 노스탤지어가 향수와 구분된 개념임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변화적인 흐름을 반영하여 사전적 정의도 노스탤지어와 향수를 구분하고 있다. The New Oxford Dictionary of English(1998)에 따르면 향수는 “고향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기간 동안 경험하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정의되는 반면에 노스탤지어는 “과거에 대한 감상적인 그리움(a sentimental longing for the past)”으로 정의되어 각자 분리된 연구 분야로서 발전되고 있다(Sedikides et al., 2004).

지금까지 제한적이지만, 노스탤지어가 일반적인 정서라는 주장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연구결과들이 제시되어 왔다. 노스탤지어는 일상적 삶 속에서의 일부를 구성하며(Hepper et al, 2012), 거의 모든 사람들이 노스탤지어를 경험한다고 한다(Boym, 2001). 또한 노스탤지어가 건강한 어른들 또는 구체적인 연령대에 한정되지 않고 연령대를 초월하여 경험되는 정서임이 발견되었다(Batcho, 1995, 1998; Mills & Coleman, 1994). 노스탤지어는 다양한 문화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정서이며,

잘 기능하는 어른들, 아이들, 청소년들, 그리고 치매(癡呆) 환자들 사이에서 공통적인 정서적 경험임이 증명되었다(Sedikides et al., 2004; Sedikides et al., 2008; Zhou et al., 2008).

노스탤지어가 일상의 삶 속에서 자주 경험되는 정서라는 연구 결과들이 다수 현존한다. 18세에서 90세까지의 연령대를 5년 단위로 구분하여 조사한 연구에서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최소 일주일에 한 번 노스탤지어를 경험한다고 보고하였으며, 마찬가지로 79%의 학부생들에게서도 노스탤지어가 일주일 단위로 자주 경험됨을 발견할 수 있었다(Wildschut, Sedikides, Arndt, & Routledge, 2006). Batcho(1995)는 높은 연령대보다도 낮은 연령대에서 노스탤지어의 경험이 보다 높다고 제시하며 노스탤지어가 나이 드는 과정(aging)의 주된 특징이라는 고정관념을 재고해볼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노스탤지어 경험에 대한 성별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음을 밝혔다.

노스탤지어의 구성 요인

선행연구에 따르면 노스탤지어는 본질적으로 정서이면서도(Barrett, Grimm, Robins, Wildschut, Sedikides, & Janata, 2010) 동시에 회상을 포함하는 인지적이며 갈망을 포함하는 동기적인 요인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Stephan et al., 2011; Wildschut et al., 2004). 그리고 노스탤지어를 정서로 분류하는 학자들 사이에서는 노스탤지어를 기본정서와 비(非)기본정서로 나누어서 이해해야 하는지 또는 정적 정서 또는 부정적 정서 차원에서 고려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왔다(Frijda, 1986; Ortony, Clore, & Collins, 1988). 노스탤지어를 비(非)기본정서로 분류하는

Kemper(1987)는 노스탤지어가 부차적이며 문화적으로 영향을 받는 정서라고 주장하였으며, Johnson-Laird와 Oatley(1989)는 노스탤지어가 만족할만한 과거와 그렇지 못한 현재의 대조로 인하여 다소의 불만족과 슬픔이 유발되어 상실이 미묘하게 담겨있는 정적인 경험으로서 정적과 부정 양면을 모두 갖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후자와 같이 노스탤지어를 정적-부적차원에서 고려하는 입장에서는 정적 차원과 부적 차원, 그리고 두 차원이 교차된 혼합정서(mixed affect)의 관점에서 노스탤지어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제시되어왔다.

우선 정적인 차원에서 노스탤지어를 연구한 Kaplan(1987)은 노스탤지어가 “기쁜 기억과 행복, 그리고 즐거움으로 구성된 과거에 대한 따뜻한 느낌”으로서 “상승된 기분과 심취된 듯한 기운을 불러일으키는 좋은 감정(p. 465)”이라고 제안하였다. Davis(1979)에 의하면 노스탤지어는 지나온 과거에 대한 정적인 정서로서 “우리가 흔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불행, 짜증, 절망, 미움, 수치, 그리고 학대와 연관된 부적 감정을 포함하지 않는다”(p. 14). Wildschut와 동료들의 연구(2008) 결과에 따르면, 영국인 대학생들은 평범한 경험을 회상했을 때보다 노스탤지어를 담은 경험을 회상했을 때 더 자주 행복과 관련된 표현을 기록하였으며, 슬픔보다 더 높은 수준의 행복을 느꼈다고 한다. 또한, 비록 노스탤지어를 불러일으키는 과거를 회상할 때 부정 정서가 먼저 경험되었다고 할지라도, 정적 정서로 전환되는 긍정적인 정서 회복(redemption)을 경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Wildschut et al., 2006).

노스탤지어가 부정 정서에 속한다고 주장한 Hertz(1990)에 따르면 노스탤지어는 “강력하고 거의 견디기 어려운 갈망”(p. 194)이며, Best와 Nelson(1985)은

과거가 회복불가능하며, 영원히 상실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 슬픔에 잠기게 되면서 노스탤지어를 경험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Frijda(1986)는 노스탤지어가 “불필요하며 상처를 주기 때문에”(p. 475) 전적으로 “비기능적인 정서로서 발생한 이후에나 헛된 것으로 지각된다”(p. 477)고 말하였으며, Wildschut와 동료들의 연구(2006)에서는 많은 참여자들이 노스탤지어를 불러일으키는 이야기를 회상하며, 실망과 상실,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과 헤어짐을 기록하였다고 한다.

노스탤지어를 달콤씹쓸(bittersweet)한 정서로서 슬픔과 애절한 기쁨의 혼합정서로 고려한 Wildschut와 동료들(2006)에 따르면, 노스탤지어는 행복과 관련된 정서로서 사랑, 자랑, 그리고 행복의 요소들을 포함하지만, 노스탤지어를 불러일으키는 경험들은 대개 부정 정서를 내포한다. 또한 Holok와 Havlena(1998)의 연구에서 참여자들은 사람, 사건, 그리고 대상에 관련된 노스탤지어 경험에서 슬픔, 짜증, 그리고 두려움의 몇 가지 부정 감정과의 연관성을 제외하고는 따뜻함, 기쁨, 감사함, 그리고 온유함과 같은 다수의 정적 감정을 경험한다고 보고함으로써, 노스탤지어가 혼합정서로 경험되는 현상임을 증명하였다. Wildschut와 동료들의 연구(2008)에서는 영국과 미국의 대학생들이 일반적인 경험과 노스탤지어를 느끼는 경험에 대해서 묘사하였을 때, 행복과 슬픔의 정서가 일반적 경험보다 노스탤지어 경험에서 동시에 더 자주 발견되었지만, 노스탤지어 경험에서 행복이 슬픔보다 더 빈도가 높았다고 한다. 즉, 노스탤지어의 ‘달콤한(sweet)’면이 ‘씹쓸한(bitter)’ 면 보다 상대적으로 더 강함을 알 수 있다.

노스탤지어가 어떠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있는지에 대하여 탐구한 Wildschut와 동료들의 연구(2006)에서는 영국인 대학생들이 노스탤지어를 불러일으키는 경험에

대하여 적은 내용을 분석했을 때, 본인을 중심으로 가족 구성원들, 친구들,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중요한 사건과 특정한 환경이 주요 요소임을 찾을 수 있었으며, 이로써 노스텔지어가 자신과 관련되며(self-relevant), 사회적인 정서임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대학생들에게 언제 노스텔지어를 느끼게 되는지 질문을 주었을 때, 대부분은 슬픔과 같은 부정 정서를 느낄 때 노스텔지어를 회상하게 되면서 기분이 나아지며, 특별히 외로움이 가장 자주 노스텔지어를 불러일으킨다고 보고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연구자들은 실험 연구에서 정적 정서 상황, 부정 정서 상황, 그리고 일반적 상황에 속한 참여자들의 노스텔지어 수준을 비교하였고, 그 결과 부정 상황에서 다른 두 상황에서보다 참여자들이 더 높은 수준의 노스텔지어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외로움을 크게 느끼는 참여자들이 외로움을 상대적으로 덜 느끼는 참여자들보다 노스텔지어를 더 높은 수준에서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실질적으로 노스텔지어가 심리적인 아픔을 덜어주며, 안정감을 회복시키는 긍정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노스텔지어의 영향과 역할

최근의 연구들에 따르면, 노스텔지어는 사람들에게 심리적으로 꼭 필요한 역할을 한다(Sedikides, Wildschut, Arndt, & Routledge, 2008). 노스텔지어는 복합적인 정서로서 주로 정적 정서를 불러일으키며, 슬픔과 외로움을 상쇄시키는 역할을 갖고 있다(Wildschut et al., 2006; Zhou, Sedikides, Wildschut, & Gao, 2008). Kaplan(1984)에 따르면, 노스텔지어는 성인기에 접어든 사람들에게 이상적인 어린 시절의 상실을 수용할 수 있도록 도우며, Godbole, Shehryar와 Hunt (2006)는 미래가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희망찬 미래를 기대하는 사람들에 비하여 높은 수준의 노스텔지어를 느낀다는 것을 발견함으로써, 노스텔지어가 좋지 않은 상태를 회복하기 위한 자원으로 자연스럽게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Zhou와 동료들(2008)에 의하면, 외로움은 사회적 지지에 대한 인식을 직접적으로 감소시키지만, 반대로 노스텔지어를 통하여 사회적 지지에 대한 인식을 상승시킴으로써, 노스텔지어가 사회적 지지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여 외로움의 영향을 상쇄함을 발견하였다.

Mills와 Coleman(1994)은 노스텔지어가 다른 이들과의 우정과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역할을 한다고 제시함으로써, 노스텔지어가 사회성이 강한 정서임을 시사하였다. 또한, Wildschut와 동료들(2006)의 연구에 따르면, 통제집단(Control group)에 속한 참여자들보다 노스텔지어 그룹의 참여자들이 더 사랑 받으며 보호받는다고 느꼈고, 동시에 감소된 애착불안과 회피, 그리고 더 높은 수준의 대인관계 능력을 보였다. 같은 맥락에서 Kleiner(1977)는 노스텔지어를 불러일으키는 경험을 회상함으로써 친구로서,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또는 다른 중요한 그룹의 구성원으로서의 자신의 긍정적인 특성들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됨을 발견할 수 있었다.

노스텔지어가 개인의 자존감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한다. Vess와 Arndt, Routledge, Sedikides, Wildschut(2008)에 따르면 노스텔지어가 긍정적인 자존감을 상승시킬 뿐만이 아니라, 긍정적인 특성들에 대한 암묵적인 접근성도 향상시키며, 자존감에 대한 자기 방어도 약화시킨다고 한다. 또한, Wildschut와 동료들(2006)은 노스텔지어가 자기 적절감을 강화할 수 있는 자신의 가치 있는 특성을

부각시킴으로써 자존감을 보호하며 향상시킨다고 제안하였다.

성격과 노스텔지어의 연구에 대하여 탐구한 Barrett와 Grimm, Robins, Wildschut, Sedikides, Janata(2010)는 성격이 노스텔지어를 경험할 수 있는 경향성의 측정치(proxy)로서 노스텔지어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보았다. 구체적으로, 슬픔과 같은 부정 정서를 느끼기 쉬운 개인의 경향성인 신경증 성향이 노스텔지어를 유의미하게 예측함을 발견하였다.

연구의 목적과 구성

위에서 보듯이 노스텔지어는 심리적인 자원으로서 취약성 또는 질병과 동등한 개념이 아님을 알 수 있다(Zhou et al., 2008). 하지만, 현재 아직까지도 오디세이에서 나타난 노스텔지어의 진정한 긍정적인 현상에 대한 이해가 왜곡되고 희석되며 불분명한 상태이다(Hepper et al., 2012). 특히 노스텔지어가 향수와 구별되는 고유한 정서로서 체험됨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전 연구 결과들에 기반하여(Batcho, 2007; Hepper et al., 2012; Sedikides et al., 2004; Wildschut et al., 2006) 노스텔지어의 내용과 촉발인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노스텔지어가 혼합된 정서로서 정적 정서와 부정 정서를 포함하는 양면적인 정서이지만, 정적인 정서가 부정 정서보다 상대적으로 더 강한 정서임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이와 같이 노스텔지어를 불러일으키는 경험을 회상할 때의 정적 정서 및 부정 정서와 노스텔지어와 관련된 경험을 회상한 후의 노스텔지어의 긍정적인 기능과 잠재적인 부정적인 기능이 성별과 연령대별로 차이를 보이는지도 탐색적으로 연구해보고자 한다.

더 나아가, 노스텔지어의 긍정적 기능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결과들이 밝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변인들과 어떠한 관계를 통해서 노스텔지어가 긍정적인 기능을 발휘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이해가 부족한 상태이다(Hepper et al., 2012). 따라서, 노스텔지어와 성격 및 적응과 관련된 변인들로서 외로움, 성격(외향성, 신경증 성향), 우울, 심리적 안녕감, 삶의 만족도, 그리고 자존감의 연관성과 노스텔지어의 긍정적 기능의 정서 조절 역할을 탐색함으로써, 부정적 정서를 조절하는데 실질적으로 노스텔지어가 어떤 영향을 갖는지에 대하여 탐구해보고자 한다.

연구 1. 노스텔지어의 내용, 촉발인 및 긍정적 기능에 대한 탐색적인 연구

노스텔지어의 본질(nature)과 현상에 대하여 오랜 시간 동안 학자들간에 의견이 불일치해왔기에, 이번 연구에서는 노스텔지어에 대한 일관적인 정의를 내릴 수 있는 탐색적인 연구를 분석함으로써 노스텔지어의 본질을 구성하는 인지적이고 정서적인 요소들에 대하여 이해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Wildschut와 동료들(2006)과 Hepper와 Ritchie, Sedikides, Wildschut(2012)의 연구의 흐름을 따라서 노스텔지어의 내용, 촉발인, 그리고 기능에 초점을 두고 노스텔지어의 현상을 탐구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노스텔지어의 긍정적 기능을 구성한다고 제시된 ‘긍정적 정서’, ‘자존감’, ‘사회적 연대성’, 그리고 ‘삶의 의미’가 포함하는 노스텔지어의 정서적 현상과 인지적 현상이 성별과 연령대에 따라서 어떻게 다르게 체험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방 법

참가자

구글 서베이(Google survey)를 사용하여 온라인상으로 참여자들을 모집하였다.

총 122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그 중 남자가 46명, 여자가 76명이다. 연령대를 살펴보면, 10세~20세는 2명, 21세~30세는 69명, 31세~40세는 18명, 41세~50세는 14명, 51~60세는 18명, 61세~70세는 1명으로써, 평균 연령은 21세~30세였으며, 표준편차는 10세~20세였다.

도 구

노스텔지어 상태 기능 척도(State Functions of Nostalgia Scale). Hepper와 동료들이 노스텔지어를 “과거에 대한 감상적인 그리움”(The New Oxford Dictionary of English, 1998)으로 정의하여 구성한 State Functions of Nostalgia Scale(2012)을 본 연구에서 번안한 척도이다. 노스텔지어를 불러일으키는 경험을 회상할 때 체험되는 정서적이고 인지적인 현상을 네 차원으로 분류하여 측정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있다. 첫 번째로 ‘긍정적인 정서’는 “나는 행복해진다”, “나의 기분이 나아진다”, “활동적인 기분이다”, “나는 침착해진다”로 구성되며, 두 번째인 ‘자존감’은 “나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된다”, “내가 다수의 좋은 면들을 갖고 있다는 기분이다”, “나 자신임이 기쁘다”, “나를 더 좋아하게 된다”로 구성되고, 세 번째로써 ‘사회적 연대성’은 “내가 사랑 받고 있는 기분이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연결 된 기분이다”, “내가 보호 받고 있는 기분이다”, “내가 다른 이들을 믿을 수 있는 기분이다”로 구성되며, 마지막으로 ‘삶의 의미’는 “삶은 살 만한 가치가 있는 기분이다”, “삶이 의미 있는 기분이다”, “삶의 목표를 느낀다”, 그리고 “삶에 더 큰 목적이 있는 기분이다”로 구성되었다. 각 항목들은 5점 척도 상(1=미비하다, 5=매우 강렬하다)에서 평정되었다. 각 요인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긍정적 정서 .80, 자존감 .91, 사회적

연대성 .88, 그리고 삶의 의미 .92였다.

노스텔지어의 내용과 촉발인 측정 항목들. Wildschut와 동료들(2006)이 노스텔지어의 본질적인 현상을 탐구하기 위하여 노스텔지어를 구성하는 내용, 촉발인, 그리고 기능을 평가할 수 있는 개별 항목들을 도표화한 것을 본 연구에서는 척도화하여 사용하였다. 노스텔지어의 내용은 노스텔지어를 불러일으키는 경험 속에서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홀로 등장하는 사람, 주인공, 또는 주인공 이외의 사람), 경험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지(사람, 중요한 사건, 특정한 환경, 인생의 한 시기, 동물, 사물), 그리고 경험 속에서 감정의 변화가 있었다면 어떤 방향으로 있었는지(긍정적인 정서 → 부정적인 정서, 부정적인 정서 → 긍정적인 정서, 또는 감정의 변화가 없음)에 초점을 두었다. 노스텔지어의 촉발인은 주로 어떤 상황이 노스텔지어를 불러일으키는지에 대하여 측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촉발인은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 사회적 교제를 나눌 때, 감각 기관을 통해서 느낄 때(후각, 청각, 시각, 촉감 등), 익숙하거나 낯익은 사건들을 경험할 때, 활동하지 않고 잠잠히 있을 때, 긍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 기념일에, 특정한 환경에 있을 때로 구성된다.

절 차

우선 노스텔지어에 대한 정의를 제시함으로써 참여자들이 노스텔지어란 개념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노스텔지어를 불러일으키는 경험을 몇 분 동안 음미하며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유도하는 지시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옥스퍼드 사전에 따르면 ‘노스탤지어’란 ‘과거에 대한 감상적인 그리움’이라고 정의됩니다. 과거에 귀하의 삶 속에서 개인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이 사건은 귀하에게 노스탤지어를 불러일으키는 사건이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귀하에게 가장 강하게 노스탤지어를 느끼게 하는 과거의 중요한 삶의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귀하의 마음속에 노스탤지어를 경험하게 하는 과거의 사건을 떠올리며 곱씹어 보세요. 귀하께 노스탤지어를 불러일으키는 경험에 대하여 몇 분 동안 생각해 보세요.

그 후, 노스탤지어를 불러일으키는 주된 경험에 대하여 적도록 지시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노스탤지어의 내용, 촉발인, 그리고 기능을 측정하는 문항들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결 과

노스탤지어의 내용과 촉발인

노스탤지어가 자신과 관련된 정서(표 1)임이 Wildschut와 동료들(2006)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여 나타났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노스탤지어를 불러일으키는 과거의 경험 속에서 자신이 ‘주인공’(N = 80)이라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주인공 이외의 사람’(N = 17)으로 답하였고, 반면에 ‘홀로 등장하는 사람’으로서의 자신은 소수(N = 7)였다. 그러므로, 노스탤지어는 사회성이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Wildschut et al., 2006).

표 1. 노스텔지어 경험 속에서의 ‘나’

구 분	홀로 등장하는 사람	주인공	주인공 이외의 사람	합계
빈도(명)	7	80	17	104
퍼센트(%)	6.7	76.9	16.3	100.0

노스텔지어를 불러일으키는 경험의 중심(표 2)에는 Wildschut와 동료들의 연구(2006) 결과처럼 대부분의 참여자들에게 주로 ‘사람’(N = 29)이 있었다. ‘인생의 한 시기’(N = 39)와 ‘특정한 환경’(N = 25)이 그 다음으로 보고됨으로써, ‘중요한 사건’과 ‘인생의 한 시기’가 ‘사람’ 다음으로 주된 중심으로 보고된 이전 연구결과와 비슷하였다.

표 2. 노스텔지어 경험 속에서의 중심

구 분	사람	중요한 사건	특정한 환경	인생의 한 시기	사물	합계
빈도(명)	29	14	25	39	2	109
퍼센트(%)	26.6	12.8	22.9	35.8	1.8	100.0

노스텔지어를 불러일으키는 경험을 회상하기 전과 후에 감정의 상태의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하여(표 3), ‘부적 정서에서 정적 정서로 변화하였다’고 보고한 참여자들(N = 27)이 상대적으로 ‘정적 정서에서 부적 정서로 변화하였다’고 보고한 참여자들(N = 25)보다 더 많았다. 하지만 부적 정서에서 정적 정서로의 변화가 현저하였던 이전 연구와 다르게(Wildschut et al., 2006), 본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참여자들(N = 54)이 ‘감정의 변화가 있지 않다’고 보고하였다. 참여자 수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추측하여, 연구 2에서는 참여자 수를 더 확보하여 노스텔지어 경험 회상 전-후의 과정 속에서 감정의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 관찰하고자 한다.

표 3. 노스텔지어 경험 속에서의 정서의 변화

구 분	긍정적 정서에서 부정적 정서로	부정적 정서에서 긍정적 정서로	정서변화 없음	합계
빈도(명)	25	27	54	106
퍼센트(%)	23.6	25.5	50.9	100.0

노스텔지어를 불러일으키는 가장 주된 촉발인(표 4)은 ‘익숙하거나 낯 익은 사건들’(N=37)임이 발견되었는데, 이전 Wildschut와 동료들(2006)이 ‘부정적인 감정’을 가장 주된 촉발인으로 보고한 결과와는 상이함을 알 수 있다. 참여자들은 두 번째로 빈번히 노스텔지어를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활동하지 않고 잠잠히 있을 때’(N = 15)와 그 다음 비슷한 빈도로 ‘특정한 환경에 있을 때’(N = 15)와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N = 16)를 보고했으며, ‘감각 기관을 통해서 느낄 때’(N = 11)와 ‘사회적 교제를 나눌 때’(N = 10)는 그 다음 순위로 보고하였다. 흥미롭게도 Wildschut와 동료들(2006)의 연구에서는 ‘감각 기관을 통해서 느낄 때’와 ‘사회적 교제를 나눌 때’가 두 번째로 빈번히 노스텔지어를 촉발하는 것으로 발견되었으며, ‘활동하지 않고 잠잠히 있을 때’와 ‘특정한 환경에 있을 때’는 거의 무의미한 촉발인으로 보고되었기에 이번 연구에서 발견한 결과와는 상당히 대비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두 문화권의 정서적 경험의 본질적인 차이에서 기여하는 것일 수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표 4. 노스텔지어 경험을 불러일으키는 경험

구 분	부정적 감정을 느낄 때	사회적 교제를 나눌 때	감각기관을 통해 느낄 때	익숙하거나 낯익은 경험할 때
빈도(명)	16	10	11	37
퍼센트(%)	14.7	9.2	10.1	33.9
구 분	활동 않고 잠잠히 있을 때	긍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	기념일에	특정한 환경에 있을 때
빈도(명)	15	3	2	15
퍼센트(%)	13.8	2.8	1.8	13.8

(총 109명, 100%)

노스텔지어의 긍정적 기능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표 5)와 같이, Hepper와 Ritchie, Sedikides, Wildschut(2012)가 제안한 노스텔지어 정서 유형(State Functions of Nostalgia)을 구성하는 총 16문항에 대한 탐색적인 요인 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선행 연구에서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구분된 네 차원(요인)들이 내재하고 있는지를 재검증하기 위하여 주성분 분석으로 요인을 추출하고, 베리맥스(varimax) 방식으로 요인을 회전시킴으로써, 요인들 간의 판별 타당성을 유지하며, 각 요인 간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을 예방하고자 하였다(홍두승, 2008).

이러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삶이 의미 있는 기분이다’, ‘삶은 살 만한 가치가 있는 기분이다’, 그리고 ‘나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된다’의 요인 적재값이 .40 이상으로 교차 부하되었기 때문에 제거되었으며, ‘나는 침착해진다’는 한 항목이 한 요인을 구성하고 있어서 이 항목을 최종 분석에서 제거되었다. 그 결과, 기존의 State Functions of Nostalgia의 네 요인을 구성하는

항목들과 다른 항목들이 네 요인으로 새롭게 도출되었다. 요인의 수를 결정할 때는 고유값 이외에 탐색적 요인 분석에서 추출된 요인들이 요인분석에 투입된 변수들의 총 분산 정도, 스크리 검정 등 전반적인 지표를 고려하여,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Hair, Anderson, Tatham, & Black, 1994). (표 5)에서 세 항목이 제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요인들이 여전히 12개 변수의 분산을 83.29% 설명하고 있으므로, Ritchie, Sedikides, Wildschut(2012)가 제안한 노스텔지어 정서 유형을 지지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첫 번째 요인은 ‘나 자신임이 기쁘다’, ‘나를 더 좋아하게 된다’, ‘내가 다 수의 좋은 면들을 갖고 있다는 기분이다’, ‘내가 사랑 받고 있는 기분이다’로 구성되어 ‘긍정적 자존감’으로 명명되었다. 두 번째 요인은 ‘나는 행복해진다’, ‘나의 기분이 나아진다’, ‘활동적인 기분이다’로 구성되어 있기에 ‘긍정적 정서’로 명명되었다. 세 번째 요인은 ‘내가 보호 받고 있는 기분이다’, ‘내가 다른 이들을 믿을 수 있는 기분이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연결 된 기분이다’로 구성됨으로서 ‘사회적 연대성’으로 명명되었다. 네 번째 요인은 ‘삶의 목표를 느낀다’와 ‘삶에 더 큰 목적이 있는 기분이다’로 구성되어 ‘삶의 의미’로 명명되었다. 이처럼, 비록 노스텔지어의 긍정적 기능을 구성하는 각 요인에 속한 문항들이 이전 연구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동일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노스텔지어의 긍정적 기능을 구성하는 요인들의 특성이 전반적으로 상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각 요인의 내적 합치도 분석 결과 ‘긍정적 자존감’ .92, ‘긍정적 정서’ .89, ‘사회적 연대성’ .85, 그리고 ‘삶의 의미’ .95로 나타나 문항들이 각 요인을 일관적으로 측정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노스텔지어의 긍정적 기능이 네 요인들로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나타나므로, 각

요인을 구성하는 항목들의 평균값으로 요인을 구성하여 이후의 분석에서 사용하였다.

표 5. 노스텔지어의 긍정적 기능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질문 항목	노스텔지어의 긍정적 기능			
	긍정적 자존감	긍정적 정서	사회적 연대성	삶의 의미
나 자신임이 기쁘다.	.81	.28	.21	.27
나를 더 좋아하게 된다.	.79	.32	.21	.24
내가 다수의 좋은 면들을 갖고 있다는 기분이다.	.74	.26	.34	.23
내가 사랑 받고 있는 기분이다.	.66	.36	.49	.12
나는 행복해진다.	.24	.85	.23	.13
나의 기분이 나아진다.	.32	.85	.21	.12
활동적인 기분이다.	.27	.76	.19	.23
내가 보호 받고 있는 기분이다.	.25	.15	.83	.25
내가 다른 이들을 믿을 수 있는 기분이다.	.27	.22	.78	.29
사랑하는 사람(들)과 연결된 기분이다.	.29	.41	.65	.19
삶의 목표를 느낀다.	.26	.19	.27	.88
삶에 더 큰 목적이 있는 기분이다.	.26	.19	.28	.87
고유값	7.20	1.21	.81	.78
분산%	23.71	22.64	20.31	16.63
누적분산%	23.71	46.35	66.66	83.29
크론바하 알파값	.92	.89	.85	.95

노스텔지어의 긍정적 기능의 성차 및 연령차

노스텔지어의 긍정적 기능의 네 요인인 ‘긍정적 자존감’, ‘긍정적 정서’, ‘사회적 연대성’, 그리고 ‘삶의 의미’에 대한 성별 차이의 유의성을 확인해보았다(표 6). 그 결과, 비록 남자의 노스텔지어의 긍정적 기능을 구성하는 각 네 요인의 평균 점수가 여자의 평균 점수보다 더 높은 경향이 있지만, 남자의 ‘긍정적 정서’ 평균 점수($M = 3.41$)와 여자의 ‘긍정적 정서’ 평균 점수($M = 2.80$)의 차이만이 유의한 ($t = 3.12, p < .01$)으로 나타났다.

표 6. 노스텔지어의 긍정적 기능 척도의 네 요인에 대한 성별에 따른 차이

구 분	성 별				<i>t</i>
	남 자(N = 46)		여 자(N = 76)		
	M	SD	M	SD	
긍정적 자존감	3.40	.97	3.13	1.03	1.39
긍정적 정서	3.41	.90	2.80	1.12	3.12**
사회적 연대성	3.24	.98	2.93	1.11	1.53
삶의 의미	3.49	1.16	3.17	1.29	1.37

* $p < .05$, ** $p < .01$

연령대에 따른 노스텔지어의 긍정적 기능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30세 이후로 안정된 성격이 형성된다는 Costa와 McCrae(1984)의 주장을 기반으로 30세를 기준으로 하여 연령대를 구분하였다. (표 7)과 같이 10세~30세를 저(低)연령대 그리고 31세~70세를 상대적으로 고(高)연령대로 구분하여, 연령대별로 노스텔지어의

긍정적 기능의 네 요인에서 유의미한 평균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31세~70세의 노스텔지어의 긍정적 기능을 구성하는 네 요인의 평균 점수가 10세~30세의 네 요인의 평균 점수보다 더 큰 경향을 볼 수 있지만, 10세~30세에서의 노스텔지어의 긍정적 기능의 평균 점수와 31세~70세에서의 노스텔지어의 긍정적 기능의 평균 점수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7. 노스텔지어의 긍정적 기능 척도의 네 요인에 대한 연령대에 따른 차이

구 분	연 령 대				<i>t</i>
	10세~30세(N = 71명)		31세~70세(N = 51명)		
	M	SD	M	SD	
긍정적 자존감	3.18	.92	3.31	1.14	-.69
긍정적 정서	2.96	1.06	3.12	1.12	-.84
사회적 연대성	2.93	1.01	3.22	1.13	-1.46
삶의 의미	3.26	1.26	3.33	1.24	-.32

* $p < .05$, ** $p < .01$

(표 8)을 보면, 노스텔지어의 네 기능의 평균값을 대응표본 *t*-검증(paired comparison)을 통하여 관찰해본 결과, ‘삶의 의미’가 가장 유의하게 크며, 그 다음 순서로 ‘긍정적 자존감’, ‘긍정적 정서’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연대성’보다 ‘긍정적 자존감’이 유의미하게 더 크다. 이처럼, 노스텔지어는 과거의 경험들을 자신의 삶에 대하여 의미 있는 이야기로 구성하여 회상하는 정서임을 알 수 있다(Routledge et al., 2011).

표 8. 노스텔지어의 긍정적 기능 척도의 네 요인에 대한 평균값 비교 결과

구 분	대 응 차				
	M	SD	95% 신뢰구간		t
			하한	상한	
긍정적 자존감 - 긍정적 정서	.21	.83	.06	.36	2.73**
긍정적 자존감 - 사회적 연대성	.18	.78	.04	.32	2.60*
긍정적 자존감 - 삶의 의미	-.06	1.03	-.24	.13	-.62
긍정적 정서 - 사회적 연대성	-.02	.96	-.19	.15	-.25
긍정적 정서 - 삶의 의미	-.26	1.20	-.48	-.05	-2.43*
사회적 연대성 - 삶의 의미	-.24	1.02	-.42	-.06	-2.62*

* $p < .05$, ** $p < .01$

논 의

위의 결과를 기반으로 노스텔지어는 자신과 관련된 정서(a self-relevant emotion)이며, 동시에 높은 수준의 사회성을 내포하며, 일반적으로 과거에 대하여 긍정적인 정서적 사색(reflection)을 동반한다고 볼 수 있다(Hepper et al., 2012). 이처럼 Davis(1979)의 주장과 일치하는 이번 연구의 결과는 노스텔지어가 이전의 바람직하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긍정적인 관점에서 재조명해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긍정적인 정서를 유발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부정적 정서를 느낄 때 노스텔지어를 체험한다고 보고한 서양인들과 다르게 익숙하거나 낯익은 사건들을 경험할 때 노스텔지어를 체험하게 된다고 보고한 한국인들에게는 노스텔지어가 부정적 정서를 상쇄시켜주는 기능적인

정서로서 체험된다기 보다는 과거에 대한 감상적인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현상으로 경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노스탤지어의 기능이 성별과 연령대별에 따라서 의미 있는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으므로, 노스탤지어는 특정한 연령대와 성별에 관계없이 경험되는 공통적인 정서(Boym, 2001)임을 시사한다. 그러나 경향으로 본다면 남자가 여자보다, 그리고 고연령대가 저연령대보다 노스탤지어의 긍정적 기능을 구성하는 네 요인 모두에서 일관성 있게 더 높았다. 예외적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긍정적 정서’의 평균값이 유의미하게 더 크다는 발견은 남자가 여자보다 노스탤지어를 불러일으키는 경험을 회상함을 통하여 긍정적 정서를 체험할 수 있는 경향이 더 강함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남자와 고연령층에서 노스탤지어의 긍정적 효과가 더 클 가능성은 엿보이지만 좀 더 표본 수가 큰 연구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면 그 어느 쪽도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연구 2. 노스텔지어의 경험과 기능에 대한 연구

이번 연구에서는 노스텔지어의 긍정적인 기능에 대하여 초점을 두고서 노스텔지어의 정서적 기능성에 대하여 탐색적인 연구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노스텔지어가 기능으로서 인지적, 행동적, 그리고 정서적인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와 노스텔지어의 기능이 실질적으로 적응 및 성격 변인들과 어떤 양상의 관계를 나타내는지 살펴봄으로써 기능의 영향에 대하여 면밀히 탐색해보고자 한다.

정적 정서로서 노스텔지어는 사회성과 강력한 관련이 있음이 제시되어 왔다. 노스텔지어를 불러일으키는 경험을 회상한 사람들이 보통 경험을 회상한 사람들보다 더욱 강한 사회적 지지에 대한 인식이 있었으며(Zhou et al., 2008), 더 큰 애착 안정감을 보였다고 한다(Wildschut et al., 2006). 반면에, 부정 정서로서의 노스텔지어는 과거에 대한 상실감, 후회, 그리고 슬픔과 같은 정서적 특징들로 구성되므로(Wildschut et al., 2006), 노스텔지어의 ‘bittersweet’한 정서가 정적 정서에 가까운지 또는 부정 정서에 가까운지에 대한 재검증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번 연구에서는 노스텔지어의 잠재적인 정적 정서와 부정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기능적인 특성을 포함하는 척도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다른 정서적 차원들이 구분된 요인들로 구성됨으로 노스텔지어의 잠재적인 정적 기능과 부정 기능의 독립적인 두 차원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볼 것이다. 더 나아가, 노스텔지어의 정적 기능과 부정 기능의 적응 및 성격 변인들에 대한 영향을 관찰해봄으로써

노스탤지어가 잠재적으로 내포하는 정적 기능과 부정 기능의 독립적인 영향에 대하여 면밀히 탐구해보고자 한다.

노스탤지어를 불러일으키는 경험을 회상하는 순간의 정서적 체험에 대한 연구결과(Hepper et al., 2012; Wildschut et al., 2006)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다. 그러므로, 이번 연구에서는 노스탤지어를 회상하는 순간 경험될 수 있는 정서가 정적 정서와 부정 정서의 큰 두 차원으로 나뉘어 체험될 수 있다고 예측하였다. 또한, 각성은 정서적 경험의 일부임이 증명되어왔기 때문에(Juslin & Västfjäll, 2008; Lundqvist, Carlsson, Hilmersson, & Juslin, 2008), 특히 부정 정서는 고(高)각성과 저(低)각성의 다른 각성 수준으로 차별적으로 구분되어 체험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노스탤지어의 긍정적 기능에 대한 네 요인을 이론적 배경에 기반하여 제시하고 증명한 Wildschut와 동료들(2006)의 State Functions of Nostalgia를 연구 1에서와 같이 이번 연구에서도 탐색적인 요인 분석을 통하여 재 검증함으로써, 노스탤지어의 긍정적 기능의 다양한 측면들 - 긍정적 정서, 자존감, 사회적 연대성, 그리고 삶의 의미 - 이 독립적인 차원들로써 타당화 될 수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위의 요인분석 결과를 토대로 하여 노스탤지어의 1) 정적 기능과 부정 기능, 2) 정적 정서, 고각성 부정 정서, 저각성 부정 정서, 그리고 3) 긍정적인 기능이 실질적으로 성별과 연령대에 따라서 어떠한 다른 차이를 보이며, 삶과 깊은 연관이 있는 적응 및 성격 변인들과는 어떤 관계를 갖는지에 대하여 탐구함으로써, 노스탤지어의 잠재적인 기능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노스탤지어 변인들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발견되어 왔기에 재검토가 필요한 적응 및 성격 변인들 - 외로움, 성격(외향성, 신경증 성향), 우울, 심리적 안녕감, 삶의 만족도, 그리고

자존감 - 과 노스텔지어를 구성하는 변인들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분석할 것이다. 더 나아가, 노스텔지어의 정서 조절 역할(Wildschut et al., 2006)을 확인해보기 위하여, 노스텔지어의 긍정적 기능을 통하여 감소되는 부정 정서의 적응 변인들에 대한 간접적인 영향을 살펴볼 것이다.

노스텔지어와 관련하여 자존감은 정적인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연구결과들이 있다(Hepper et al., 2012; Leary & Baumeister, 2000; Shackelford, 2001; Wildschut et al., 2006). Shackelford(2001)에 의하면 자존감은 관계에 대한 만족감 (예: 노스텔지어의 ‘사회적 연대성’, 노스텔지어 정적 기능의 ‘사랑 받는 느낌이다’)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한다. 같은 맥락에서, Leary와 Baumeister(2000)는 관계에서 얻는 만족감이 자존감에 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그러므로 노스텔지어의 정적 기능과 긍정적인 기능, 그리고 정적 정서는 자존감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낼 것이라고 예측될 수 있다. 반대로, 노스텔지어의 부정 기능과 부정 정서, 그리고 자존감은 부정 상관을 보일 것이라고 예측 할 수 있다.

노스텔지어가 정적 정서의 증가와 부정 정서의 감소를 예측(Orth, Robins, & Widaman, 2011)하였다는 연구 결과에 기반하여, 정서적 적응 및 성격 변인들인 외로움과 우울은 노스텔지어의 정적 정서, 정적 기능, 그리고 긍정적인 기능과 부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낸다고 예측할 수 있다. 또한, Orth와 Robins, Roberts(2008)에 따르면 낮은 자존감은 우울에 취약한 상태이면서 동시에 우울을 예측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므로, 노스텔지어의 부정 기능과 부정 정서는 우울과 그리고 우울과 동일한 정서적 특징을 갖고 있는 외로움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일 것이라고 예측 할 수 있다.

Kotov, Gamez, Schmidt와 Watson(2010)에 따르면, 성격 요인들 중 신경증 성향은 우울 그리고 불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신경증 성향은 노스텔지어의 부적 정서와 부적 기능과 정적 상관을 갖는다고 예측 할 수 있으며, 반대로 노스텔지어의 정적 정서와 정적 기능, 그리고 긍정적 기능과는 부적 상관을 나타낸다고 예측 가능하다.

노스텔지어가 사회적인 특성이 강한 정서이므로(Hepper et al., 2012; Wildschut et al., 2010), 한 개인의 사회성을 나타내는 외향성과 노스텔지어의 정적 정서, 정적 기능, 그리고 긍정적 기능은 정적 상관을 나타낼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반면에, 외향성이 우울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Clark(1994)의 주장을 기반으로, 노스텔지어의 부적 정서와 부적 기능은 외향성과 부적 상관을 갖는 다고 예측할 수 있다.

Sedikides와 동료들(2004)에 의하면, 노스텔지어를 의미를 만들어내는 자원으로 고려할 때, 노스텔지어가 자신만의 고유한 삶의 경험에 근본을 두고 있으므로(Wildschut, Sedikides, & Cordaro, 2011), 동일하게 삶에서의 경험을 기반으로 형성되는 주관적인 심리적 안녕감(Diener, 1984)은 노스텔지어의 정적 정서, 정적 기능, 그리고 긍정적인 기능과 정적 상관을 보일 것이라고 예측 될 수 있다. 반면에, 주관적인 심리적 안녕감이 낮은 수준일 때에는 노스텔지어의 부적 정서와 부적 기능과 정적 상관을 나타낼 것이라고 예측 가능하다.

King(2001a)에 따르면, 자신에 대한 최상의 모습을 담은 이야기는 향상된 정적 정서와 지속적인 삶의 만족도의 증가와 관련이 있다고 한다. 노스텔지어가 과거에 대한 긍정적인 삶의 이야기를 담은 정적 정서(Hepper et al., 2012; Wildschut et al., 2006)임을 고려할 때, 삶의 만족도는 노스텔지어의 정적 정서, 정적 기능, 그리고

긍정적 기능과 정적 상관을 보인다고 예측될 수 있다. 또한, 노스텔지어가 과거의 자신에 대한 후회와 상실, 그리고 아픔을 포함하는 이야기를 담은 부정 정서(Ortony, Clore, & Collins, 1988)로써 고려된다면, 삶의 만족도는 노스텔지어의 부정 정서와 부정 기능과 부정 상관을 나타낼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노스텔지어를 불러일으키는 경험을 회상하는 빈도와 노스텔지어의 기능과 정서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추론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상관관계를 통하여 탐색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번 연구에서는 노스텔지어를 불러일으키는 경험을 회상하는 평균적인 빈도와 노스텔지어의 정적 기능, 부정 기능, 정적 정서, 고각성 부정 정서, 저각성 부정 정서, 그리고 긍정적인 기능의 상관관계를 탐색할 것이다. 또한, 노스텔지어를 불러일으키는 경험을 회상한 후에 평가된 적응 및 성격 변인들 - 외로움, 성격(외향성, 신경증 성향), 우울, 심리적 안녕감, 삶의 만족도, 그리고 자존감 - 과 노스텔지어를 불러일으키는 경험을 회상하는 평균적인 빈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노스텔지어와 연령대의 관계에 대하여 Mather(2006)에 따르면, 나이든 연령대에서 기억에 대한 긍정적인 편견이 있을 수 있다고 한다. 반면에, Hepper와 동료들(2011)은 노스텔지어를 체험할 수 있는 경향성의 수준이 젊은 어른시절과 좀 더 연령대가 높은 어른시절 모두에서 상승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이번 연구에서는 노스텔지어 경험을 구성하는 노스텔지어의 1) 정적 정서, 고각성 부정 정서, 저각성 부정정서, 2) 정적 기능과 부정 기능, 그리고 3) 긍정적인 기능에 대하여 연령대에 따른 평균 차이가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탐구해 볼 것이다.

성별과 노스텔지어에 대해서 Zhou와 동료들(2008)에 의하면, 성별에 따른 노스텔지어 영향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남자와

여자에 따라서 노스탤지어 경험을 구성하는 노스탤지어의 1) 정적 정서, 고각성 부정 정서, 저각성 부정 정서, 2) 정적 기능과 부정 기능, 그리고 3) 긍정적인 기능의 평균 차이가 존재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위와 같은 탐색적 분석을 토대로 노스탤지어의 긍정적 기능이 부정 정서인 외로움과 적응 변인들인 심리적 안녕감과 삶의 만족도, 자존감의 관계를 매개함으로써 외로움의 부정적인 영향이 감소됨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방 법

참가자

본 연구에서는 서울대학교에서 심리학 관련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과 그 밖에 다양한 연령대를 구성하는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남자가 112명 그리고 여자가 118명이었다. 10세~20세는 46명, 21세~30세는 141명, 31세~40세는 11명, 41세~50세는 11명, 51세~60세는 18명, 그리고 61세~70세가 3명이었다. 평균 연령은 21세~30세였으며, 표준편차는 10세~20세였다.

도 구

노스탤지어 상태 기능 척도 (State Functions of Nostalgia Scale). 연구 1에서 쓰인 척도와 동일하다.

노스텔지어의 내용과 촉발인 측정 항목들. 연구 1에서 쓰인 척도와 동일하다.

노스텔지어 관련 정서 척도. 기존 연구 결과에 기반하여 노스텔지어 정서의 특성인 과거에 대한 감상적인 그리움을 구성하고 예측될 수 있는 정서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다. 노스텔지어를 회상하는 순간에 어떤 정서를 체험하는지에 대하여 5점 척도 상 (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에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관성(Cronbach's α)은 정적 정서는 .89, 고각성 부정 정서는 .79, 저각성 부정 정서는 .78이다.

노스텔지어의 정적 기능과 부정 기능 척도. Wildschut와 동료들(2006)이 노스텔지어의 잠재적인 정적인 특징과 부정적인 특징을 탐구하기 위하여 참여자들에게 각각의 특징을 구성하는 항목들에 대하여 기재한 후 7점 척도상(-3=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3=아주 바람직하다)에서 평가하도록 하여 얻은 결과를 도표화 한 것을 본 연구에서는 척도화하여 사용하였다. 이전 연구에서 바람직한가 또는 바람직하지 않은가의 차원에서 노스텔지어를 탐구하고자 한 근본적인 이유가 노스텔지어의 잠재적인 긍정적인 기능과 부정적인 기능을 탐색해보고자 함이므로, 이번 연구에서는 노스텔지어의 기능적인 차원을 측정하는 척도로써 5점 척도 상 (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에서 평정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관성(Cronbach's α)은 정적 기능은 .80, 부정 기능은 .75이다.

개정된 UCLA 외로움 척도 (Revised UCLA Loneliness Scale: RULS). 외로움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개정판 UCLA 외로움 척도(Russell et al., 1980)를 김옥수(1997)가 번역하여 타당화 한 것을 사용하였다. 20개 문항의 자기보고형 질문지로 외로움을 느끼는 빈도에 따라서 5점 척도 상 (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에서 평정되도록 하였다. 가능한 점수는 20점~8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외로움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전 연구들에서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높은 내적 일관성(Cronbach's α)이 .92를 보였다.

Big 5 측정 질문지(Interpersonal Personality Item Pool: IPIP). Goldberg와 Saucier(1996)의 Big 5 측정 질문지를 유태용, 김명언, 이도형(1997)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외향성, 우호성, 성실성, 신경증적 성향, 경험에 대한 개방성의 5가지 각 요인 별로 10문항씩 총 5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 연구에서 탐구하고자 하는 외향성과 신경증 성향 성향에 대한 총 20문항을 본 연구에서 사용하였다. 5점 척도 상(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에서 평정되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외향성과 신경증 성향 각각의 내적 일관성(Cronbach's α)은 .87과 .88였다.

삶의 만족도(Satisfaction With Life Scale: SWLS). Diener 등(1985)이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한 척도를 안신능(2006)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5문항으로 구성되며, 자신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판단을 5점 척도 상(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에서 평정하도록 하였다. 한국판 척도의 내적 일관성(Cronbach's α)은 .82였고,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관성(Cronbach's α)은 .86이었다.

자존감 척도 (Global Self-Esteem Scale: RSES). Rosenberg(1965)가 개발한 RSES를 이훈진과 원호택(1995)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자기 개념의 특정 영역에 국한되지 않는 전반적인 자존감을 측정하는 1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문항이 자신에게 해당되는 정도를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상에서 평정한다. 한국판 척도의 내적 일관성(Cronbach's α)은 .89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관성(Cronbach's α)은 .87이었다.

주관적 안녕감 (Subjective Well-Being: SWB). Ryff(1989)의 심리적 긍정적 기능 척도(Psychological Positive Functioning) 18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아 수용, 타인과의 긍정적 관계, 자율성, 환경에 대한 지배감, 인생의 목표, 개인적 성장의 여섯 가지 하위 차원으로 구성된다. 각 문항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점(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 상에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관성(Cronbach's α)은 .81이었다.

한국판 Beck 우울 척도 (Beck Depression Inventory: BDI). Beck(1967)이 우울 증상을 측정하기 위해서 개발한 자기보고형 검사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영호와 송중용(1991)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21개 문항이며 항목마다 우울증상의 심한 정도를 기술하는 4개 문장 중 지난 1주일 동안의 피검자의 경험에 적합한 문장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각 문항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점(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 상에서 평정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관성(Cronbach's

α)은 .90이었다

절 차

연구 1에서와 동일하게 우선 노스텔지어에 대한 정의를 제시하여 참여자들이 노스텔지어란 개념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노스텔지어를 불러일으키는 경험을 몇 분 동안 음미하며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유도하는 지시문을 연구 1에서와 같이 제시하였다. 그 다음, 노스텔지어를 불러일으키는 주된 경험에 대하여 적도록 지시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노스텔지어의 내용, 촉발인, 기능과 노스텔지어를 회상한 이후의 적응 및 개인차 변인을 측정하는 문항들에 답하도록 하였다. 설문지는 구글 서베이를 사용하여 온라인 상에서 실시되었고 3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결 과

노스텔지어의 내용과 촉발인

연구 1에서처럼 동일하게 노스텔지어가 자신과 관련된 정서(Wildschut et al., 2006; Routledge et al., 2011)임이 발견되었다(표 9). 대부분의 참여자들(N=178)은 노스텔지어를 불러일으키는 과거의 경험 속에서 자신이 ‘주인공’이라고 답했다. 반면에 ‘홀로 등장하는 사람’으로서의 자신은 25명이며, ‘주인공 이외의 사람’으로서의 자신은 29명으로서 분명하게 노스텔지어는 자신이 도드라지는

경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Wildschut et al., 2006).

노스텔지어를 불러일으키는 경험의 중심(표 10)에는 대부분의 참여자들에게 주로 ‘사람’(N = 73)이 있었다. 두 번째로는 ‘인생의 한 시기’(N = 70)였으며, 세 번째로는 ‘특정한 환경’(N = 44)으로, 연구 1의 결과와 동일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

표 9. 노스텔지어 경험 속에서의 ‘나’

구 분	홀로 등장하는 사람	주인공	주인공 이외의 사람	합계
빈도(명)	25	178	29	232
퍼센트(%)	10.8	76.7	12.5	100.0

표 10. 노스텔지어 경험 속에서의 중심

구 분	사람	중요한 사건	특정한 환경	인생의 한 시기	사물	합계
빈도(명)	73	38	44	70	4	229
퍼센트(%)	31.9	16.6	19.2	30.6	1.7	100.0

노스텔지어를 불러일으키는 경험을 회상하기 전의 감정의 상태와 회상한 후의 감정의 상태에서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대부분의 참여자들은(N = 103) 감정의 변화가 있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표 11). 이전 연구에서는 부정 정서에서 정적 정서로의 변화가 분명하게 나타났음을 고려할 때(Wildschut et al., 2006), 참여자 수를 더 확보한다면 이와 같은 동일한 결과를 발견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부정 정서에서 정적 정서로 변화하였다고 보고한 참여자들 (N = 70)이 정적 정서에서 부정 정서로 변화하였다고 보고한 참여자들(N = 59)보다 다수임을 알

수 있다.

표 11. 노스텔지어 경험 속에서의 정서의 변화

구 분	긍정적 정서에서 부정적 정서로	부정적 정서에서 긍정적 정서로	정서변화 없음	합계
빈도(명)	59	70	103	232
퍼센트(%)	25.4	30.2	44.4	100.0

노스텔지어를 불러일으키는 경험을 얼마나 자주 회상하는지에 대하여(표 12) 대다수의 사람들은(N = 68) ‘한 달에 한 번 및 두 번’ 회상한다고 보고하였으며, 그 다음 순위로 ‘약 한 주에 한 번’(N = 47) 과거에 대한 감상적인 그리움을 촉발하는 경험을 회상한다고 응답하였다. 79%의 응답자들이 노스텔지어를 일주일에 한 번 또는 그 이상 경험한다고 보고한 Wildschut와 동료들의 연구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에 47.5% 응답자들만이 일주일 또는 하루 단위로 노스텔지어를 경험한다고 응답한 이번 연구 결과는 서양에 비교하여 한국인의 노스텔지어 정서는 상대적으로 덜 자주 경험되는 정서임을 추론해 볼 수 있다.

표 12. 노스텔지어 경험의 빈도

구 분	일년에 1~2번	2~3달 만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및 두 번	약 한 주에 한 번
빈도(명)	18	36	68	47
퍼센트(%)	7.8	15.5	29.3	20.3
구 분	약 한 주에 두 번	한 주에 3~4번	최소 하루에 한 번	합계
빈도(명)	28	28	7	232
퍼센트(%)	12.1	12.1	3.0	100.0

노스텔지어를 불러일으키는 가장 주된 촉발인(표 13)은 ‘활동하지 않고 잠잠히 있을 때’(N = 62)임이 발견되었으며, ‘익숙하거나 낯익은 사건들을 경험할 때’(N = 48)가 그 다음으로 주된 촉발인임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연구 1에서 ‘익숙하거나 낯익은 사건들을 경험할 때’가 가장 주된 촉발인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활동하지 않고 잠잠히 있을 때’였음을 고려할 때, 반복적으로 검증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흥미로운 발견은 ‘부정적인 감정’이 가장 주된 촉발인으로 발견된 Wildschut와 동료들 (2006)의 연구 결과와 다르게, 연구 2에서는 ‘특정한 환경에 있을 때’(N = 29)와 함께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N=29)가 세 번째로 주된 촉발인으로 보고되었다는 점이다.

표 13. 노스텔지어 경험을 불러일으키는 경험

구 분	부정적 감정을 느낄 때	사회적 교제를 나눌 때	감각기관을 통해 느낄 때	익숙하거나 낯익은 경험할 때
빈도(명)	29	25	20	48
퍼센트(%)	12.7	11.0	8.8	21.1
구 분	활동 않고 잠잠히 있을 때	긍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	기념일에	특정한 환경에 있을 때
빈도(명)	62	9	6	29
퍼센트(%)	27.2	3.9	2.6	12.7

(총 106명, 100%)

노스텔지어의 긍정적 기능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연구 1에서처럼 노스텔지어의 긍정적 기능을 구성하는 네 요인(Hepper et al., 2012)의 내적 구조를 살펴보기 위해 척도 16개 문항에 대한 탐색적인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표 14). 각 네 가지의 기능에 해당되는 네 항목들이 총 16개 문항으로서 주 성분 분석으로 요인을 추출 하였을 때 이전 연구와 동일한 네 차원이 구성되는지 살

펴보고자 하였다. Hepper와 동료들(2012)에 의하면, 노스텔지어의 긍정적 기능을 구성하는 네 요인이 독립적인 내용 타당성을 갖고 있기에, 네 요인들간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을 방지하며, 네 요인들의 판별 타당성을 위하여(홍두승, 2008) 주성분 분석의 배리맥스 방식으로 요인을 회전시켜 분석하였다.

요인 분석 결과,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와 ‘내가 다른 이들을 믿을 수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든다’는 교차 부하값이 .40 이상으로 제외되었으며, ‘차분함을 느끼게 만든다’는 문항이 한 요인에 적재되어서, 이 항목이 최종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그 결과, 네 번째 요인의 아이겐 값이 기준치 1에 상대적으로 미달되지만, 추출된 네 개의 요인이 요인 분석에 투입된 변수들의 총 분산을 82.46%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요인 분석 결과가 유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Hair, Anderson, Tatham, & Black, 1994).

첫 번째 요인은 ‘내가 다수의 좋은 면들을 갖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든다’, ‘내 자신에 대해 좋게 느끼게 만든다’, ‘내 자신을 더 좋아하게 만든다’, ‘내 자신을 더욱 가치 있는 사람처럼 느끼게 만든다’, ‘기분이 좋아지게 만든다’, 그리고 ‘활동적으로 느끼게 만든다’로 구성되어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정서를 포함하기에 ‘긍정적 자존감’으로 명명되었다. 두 번째 요인은 ‘삶에는 더 큰 목적이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든다’와 ‘삶에 목적이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든다’로 구성되어 ‘삶의 목적’로 명명되었다. 세 번째 요인은 ‘내가 보호 받는 것처럼 느끼게 만든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연결 된 것처럼 느끼게 만든다’ 그리고 ‘내가 사랑 받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든다’로 구성되어 ‘사회적 연대성’으로 명명되었다. 네 번째 요인은 ‘삶은 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든다’와 ‘삶이 의미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든다’로 구성되어 ‘삶의 의미’로 명명되었다.

표 14. 노스텔지어의 긍정적 기능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질문 항목	노스텔지어의 긍정적 기능			
	긍정적 자존감	삶의 목적	사회적 연대성	삶의 의미
내가 다수의 좋은 면들을 갖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든다.	.81	.32	.13	.25
내 자신에 대해 좋게 느끼게 만든다.	.76	.33	.30	.30
내 자신을 더 좋아하게 만든다.	.73	.35	.33	.23
내 자신을 더욱 가치 있는 사람처럼 느끼게 만든다.	.69	.40	.25	.25
기분이 좋아지게 만든다.	.69	-.02	.29	.41
활동적으로 느끼게 만든다.	.64	.45	.32	.02
삶에는 더 큰 목적이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든다.	.30	.85	.17	.24
삶에 목적이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든다.	.30	.77	.19	.38
내가 보호 받는 것처럼 느끼게 만든다.	.19	.28	.88	.12
사랑하는 사람(들)과 연결 된 것처럼 느끼게 만든다.	.44	.02	.65	.36
내가 사랑 받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든다.	.44	.24	.61	.41
삶은 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든다.	.29	.38	.25	.78
삶이 의미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든다.	.34	.44	.27	.71
고유값	8.37	.97	.78	.57
분산%	30.27	19.01	17.16	15.83
누적 분석%	30.27	49.28	66.44	82.26
크론바하 알파값	.93	.91	.85	.92

이처럼, 이전 Hepper와 동료들(2012)의 연구와 연구1에서 발견한 노스텔지어의 긍정적 기능의 네 요인과는 다른 요인이 구성되었지만 전반적으로 노스텔지어의 정서적이며 인지적으로 긍정적인 기능으로서의 특성은 일관성 있게 유지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각 요인의 내적 일관성은 ‘긍정적 자존감’ .93, ‘삶의 목적’ .91, ‘사회적 연

대성' .85, 그리고 '삶의 의미' .92로 나타나 연구1에서와 마찬가지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이처럼, 노스텔지어의 긍정적 기능이 네 요인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나타나므로, 각 요인을 구성하는 항목들의 평균값을 구하여서 요인을 구성하여 이후의 분석에서 사용하였다.

노스텔지어의 정적 기능과 부정 기능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노스텔지어의 정적 기능과 부정 기능의 내적 구조를 살펴보기 위하여 전체 230명을 대상으로 척도 10개 문항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정적 기능과 부정 기능 각각에 포함되는 5개씩의 문항을 주성분 분석으로 요인을 추출하고 베리맥스 방식으로 요인을 회전시켜 요인분석 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표 15)에 제시하였다. 노스텔지어의 정적 기능과 부정 기능에서 고유치가 각각 3.758, 1.727로써 1.0이상으로 나왔으며, 추출된 두 기능 요인은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의 전체 변량의 54.86%를 설명한다. 이처럼, 노스텔지어의 기능이 정적 기능과 부정 기능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나타나므로, 각 요인을 구성하는 항목들의 평균값으로 요인을 구성하여 이후의 분석에서 사용하였다.

노스텔지어 경험을 회상할 때의 감정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노스텔지어를 불러일으키는 경험을 회상할 때 순간의 감정에 대한 내적 구조를 살펴보기 위하여 전체 230명을 대상으로 척도 12개 문항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6)에서 제시된 것처럼, 주성분 분석으로 요인을 추출하고 베리

맥스 방식으로 요인을 회전시켜 요인 분석 하였을 때, 세 개의 요인이 추출됨을 알 수 있다. 첫 번째 요인은 ‘기쁘다’, ‘즐겁다’, ‘평온하다’, ‘편안하다’의 네 문항으로 구성되며, 두 번째 요인은 ‘짜증난다’, ‘화가 난다’, ‘불안하다’, ‘두렵다’로 구성되고, 세 번째 요인은 ‘섭섭하다’, ‘서글프다’, ‘서운하다’, ‘슬프다’로 구성됨이 발견된다. 그러므로, 첫 번째 요인은 정적 정서, 두 번째 요인은 고각성 부정 정서, 그리고 세 번째 요인은 저각성 부정 정서로 명명하였다.

표 15. 노스텔지어의 정적 기능과 부정 기능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질문 항목	정적 기능	부정 기능
정말 행복하다	.81	-.20
사랑 받는 느낌이다	.78	-.07
자존감을 높여준다	.70	-.23
즐거웠던 시간을 떠올린다	.68	-.05
내 본연 모습을 성장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65	.01
슬픔을 느낀다	-.30	.72
과거를 지나치게 생각하게 된다	.15	.72
나를 외롭게 만든다	-.39	.67
상실감을 느낀다	-.37	.67
내가 후회하는 것을 회상시킨다	.06	.65
고유치	3.76	1.73
분산%	30.27	24.59
누적 분산%	30.27	54.86
크론바하 알파값	.80	.75

정적 정서, 고각성 부적 정서, 그리고 저각성 부적 정서의 고유치가 각각 5.20, 1.77, 그리고 1.08로써 1.00 이상으로 나왔으며, 세 차원의 정서는 전체 변량의 67.09%를 설명하였다. 이처럼, 노스텔지어를 회상할 때 느끼는 정적 정서와 고각성 부적 정서, 그리고 저각성 부적 정서가 다른 요인들로 명확하게 나타나므로, 각 요인을 구성하는 항목들의 평균값을 구하여서 요인을 구성하여 이후의 분석에서 사용하였다.

표 16. 노스텔지어를 불러일으키는 경험 회상 순간 감정의 요인분석 결과

질 문 항 목	정적 정서	고각성 부적정서	저각성 부적정서
기쁘다	.88	-.02	-.18
즐겁다	.87	-.08	-.19
평온하다	.81	-.31	-.06
편안하다	.75	-.29	-.12
짜증난다	-.21	.77	.13
화가 난다	-.20	.74	.11
불안하다	-.18	.73	.34
두렵다	-.03	.69	.35
섭섭하다	-.02	.11	.79
서운하다	-.10	.28	.78
서글프다	-.39	.29	.63
슬프다	-.36	.23	.60
고유치	5.20	1.77	1.08
분산%	26.30	21.27	19.52
누적분산%	26.30	47.57	67.09
크론바하 알파값	.89	.79	.78

노스텔지어 관련 요인들에 대한 성별과 연령대에 따른 평균차이 비교

위의 요인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구성된 노스텔지어의 정적기능과 부정적기능에 따른 성별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t 검정을 실시하였다. (표 17)에서와 같이, 남자와 여자에 따른 정적 기능과 부정적 기능의 평균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남자와 여자 모두 정적 기능에서 부정적 기능에서보다 더 높은 평균을 갖고 있다.

연령대에 따른 노스텔지어의 정적 기능과 부정적 기능의 평균차이가 유의미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t 검정을 실시한 결과(표 17), 10세~30세와 31세~70세에 따른 노스텔지어의 정적 기능과 부정적 기능에 대한 평균값의 차이가 각각 유의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0세~30세와 31세~70세 모두 정적 기능에서 부정적 기능에서보다 더 높은 평균을 갖고 있다.

표 17. 노스텔지어의 정적 기능과 부정적 기능에 대한 성별과 연령대에 따른 차이

구 분	성 별				<i>t</i>
	남 자(N = 112)		여 자(N = 118)		
	M	SD	M	SD	
정적 기능	3.42	.73	3.48	.79	-.67
부적 기능	2.72	.81	2.74	.78	-.17
구 분	연 령 대				<i>t</i>
	30세 이하(N = 187)		30세 이상(N = 43)		
	M	SD	M	SD	
정적 기능	3.40	.74	3.68	.82	-2.21 *
부적 기능	2.80	.79	2.45	.72	2.66 **

* $p < .05$, ** $p < .01$

노스텔지어를 구성하는 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의 평균차이를 대응 표본 t 검정(paired comparison)으로 살펴보았다. (표 18)에서와 같이, 정적 정서가 유의하게 부정적 정서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8. 노스텔지어의 정적 기능과 부정적 기능에 대한 평균값 비교 결과

구 분	대 응 차				<i>t</i>
	M	SD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정적 정서 – 부정적 정서	.72	1.28	.55	.89	8.57 ***

* $p < .05$, ** $p < .01$, *** $p < .001$

노스텔지어 관련 정서 척도의 세 요인 - 정적 정서, 고각성 부정적 정서, 저각성 부정적 정서 - 이 성별에 따라서 유의미한 평균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t 검정을 실시하였다. (표 19)에서처럼, 정서의 세 요인이 남자와 여자에 따른 유의미한 평균 차이를 갖고 있지 않음을 볼 수 있다. 또한, 남자와 여자 모두 정적 정서의 평균값이 가장 크며, 그 다음은 저각성 부정정서, 마지막으로 고각성 부정정서임을 알 수 있다.

노스텔지어 관련 정서를 구성하는 정적 정서, 고각성 부정적 정서, 그리고 저각성 부정적 정서에 대하여 연령대에 따른 평균 차이가 있는지 t 검정을 실시하였다(표 19). 그 결과, 10세~30세와 31세~70세 사이에서 유의미한 평균값의 차이를 보이는 노스텔지어 관련 정서는 정적 정서와 저각성 부정 정서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0세~30세와 31세~70세 모두 정적 정서의 평균값이 가장 크며, 저각성 부정정서가 그 다음으로 크고, 마지막으로 고각성 부정 정서임을 볼 수 있다.

표 19. 노스텔지어 관련 정서 척도의 세 요인에 대한 성별과 연령대에 따른 차이

구 분	성 별				t
	남 자(N = 112)		여 자(N = 118)		
	M	SD	M	SD	
정적 정서	3.09	.90	3.24	.98	-1.20
고각성 부적 정서	1.87	.72	1.95	.64	-.95
저각성 부적 정서	2.12	.79	2.14	.78	-.21

구 분	연 령 대				t
	30세 이하(N = 187)		30세 이상(N = 43)		
	M	SD	M	SD	
정적 정서	3.08	.92	3.57	.95	-3.18**
고각성 부적 정서	1.95	.67	1.76	.69	1.69
저각성 부적 정서	2.19	.78	.188	.76	2.42*

* $p < .05$, ** $p < .01$

노스텔지어와 관련된 정적 정서, 고각성 부적 정서, 저각성 부적 정서의 평균차이를 비교해보기 위하여 t 검정을 실시한 결과(표 20), 유의미하게 정적 정서가 가장 크며, 그 다음으로는 저각성 부적 정서, 고각성 부적 정서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노스텔지어는 가장 주된 정서가 정적 정서이지만 저-고각성의 부적 정서를 포함하는 정서로서 “달콤씹쓸”한 정서(Barrett, et al., 2010)임을 확인하였다.

노스텔지어의 긍정적 기능을 구성하는 네 요인 - 긍정적 자존감, 삶의 목적, 사회적 연대성, 그리고 삶의 의미 - 에 대하여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평균차이가 있는지 t 검정을 실시하였다. 표 21에서와 같이, 성별간에 노스텔지어의 긍정적 기능의 네 요인에 대한 유의미한 평균 차이가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즉,

노스텔지어의 긍정적 기능은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일반적으로 경험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20. 노스텔지어 관련 정서 척도의 세 요인에 대한 평균비교

구 분	대 응 차				<i>t</i>
	M	SD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정적 정서 – 고각성 부적 정서	1.26	1.40	1.09	1.44	13.71 ***
정적 정서 – 저각성 부적 정서	1.04	1.47	.85	1.23	10.78 ***
고각성 부적 정서 – 저각성 부적 정서	-.22	.57	-.29	-.14	-5.80 ***

* $p < .05$, ** $p < .01$, *** $p < .001$

(표 21)에 제시된 것과 같이, 노스텔지어의 긍정적 기능의 네 요인인 긍정적 자존감, 삶의 목적, 사회적 연대성, 그리고 삶의 의미에 대하여 연령대에 따른 유의미한 평균차이가 있는지 *t* 검정을 실시하였다(홍두승, 2008). 10세~30세와 31세~70세의 연령대간에 노스텔지어의 긍정적 기능의 세 요인 – 긍정적 자존감, 삶의 목적, 사회적 연대성-에 대한 유의미한 평균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31세 이상의 연령대가 30세 이하의 연령대보다 긍정적 자존감을 회복해주며, 삶의 목적을 느끼게 해주고, 다른 이들과의 사회적 연대성을 강화해주는 노스텔지어의 긍정적인 기능을 체험하는 경향이 더 강함을 나타낸다.

표 21. 노스텔지어의 네 기능에 대한 성별과 연령대의 차이

구 분	성 별				t
	남 자(N = 112)		여 자(N = 118)		
	M	SD	M	SD	
긍정적 자존감	3.18	.89	3.11	.94	.59
삶의 목적	3.23	1.03	3.31	.99	-.61
사회적 연대성	3.13	.93	3.24	1.01	-.83
삶의 의미	3.62	1.02	3.42	.95	1.51

구 분	연 령 대				t
	30세 이하(N = 187)		30세 이상(N = 43)		
	M	SD	M	SD	
긍정적 자존감	3.06	.89	3.47	.95	-2.74 **
삶의 목적	3.17	.99	3.67	.99	-3.00 **
사회적 연대성	3.11	.96	3.51	.97	-2.48 *
삶의 의미	3.47	.99	3.73	.97	-1.55

* $p < .05$, ** $p < .01$

(표 22)에 제시된 바와 같이, 대응 표본 t 검정(paired comparison)으로 노스텔지어의 긍정적 기능을 이루는 네 요인의 평균값을 비교해본 결과, 삶의 의미가 유의미하게 가장 크며, 그 다음으로 유의미하게 삶의 목적, 긍정적 자존감이 크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유의미하게 사회적 연대성보다 삶의 의미가 큼을 볼 수 있다. 이처럼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삶의 의미를 구성하는 심리적 과정은 노스텔지어를 불러일으키는 과거에 대한 감상적인 회상과 깊은 연관이 있음을 제시한다(Frankl, 1959; Routledge et al., 2011).

표 22. 노스텔지어의 긍정적 기능 척도의 네 요인에 대한 평균값 비교 결과

구 분	대 응 차				
	M	SD	95% 신뢰구간		t
			하한	상한	
긍정적 자존감 - 삶의 목적	-.13	.74	-.22	-.03	-2.62 **
긍정적 자존감 - 사회적 연대성	-.05	.66	-.13	.04	-1.02
긍정적 자존감 - 삶의 의미	-.38	.70	-.47	-.29	-8.25 ***
삶의 목적 - 사회적 연대성	.08	.91	-.03	.20	1.39
삶의 목적 - 삶의 의미	-.25	.75	-.35	-.16	-5.15 ***
사회적 연대성 - 삶의 의미	-.34	.78	-.44	-.23	-6.56 ***

* $p < .05$, ** $p < .01$, *** $p < .001$

연령대와 성별에 따른 노스텔지어 경험 빈도 평균값의 차이 비교

연령대와 성별에 따른 노스텔지어 경험 빈도 평균값의 차이가 있는지 t 검정을 통하여 검토해보고자 하였다(표 23). 우선, 노스텔지어를 불러일으키는 경험을 회상하는 빈도를 높은 빈도에서 낮은 빈도순으로 역코딩하였다(최소 하루에 한 번=7, 일년에 1-2번=1).

(표 23)과 같이, 성별에 따른 노스텔지어 경험을 회상하는 빈도에 대한 평균값의 차이가 있는지 보았을 때,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음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남자와 여자 모두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번 또는 두 번 노스텔지어를 불러일으키는 경험을 회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지만, 남자가 여자보다 다소 더 노스텔지어를 자주 겪는 경향이 있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3)에서처럼, 연령대에 따라서는 노스텔지어 경험을 회상하는 빈도에 대한 평균값의 차이가 유의미함을 알 수 있다. 높은 연령대와 낮은 연령대 모두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번 또는 두 번’ 노스텔지어를 불러일으키는 경험을 회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더 젊은 연령대가 노스텔지어를 불러일으키는 경험 회상을 조금 더 자주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23. 노스텔지어 경험 회상 빈도에 대한 연령대와 성별에 따른 차이

구 분	성 별				<i>t</i>
	남 자(N = 112)		여 자(N = 118)		
	M	SD	M	SD	
노스텔지어 경험 회상 빈도	3.75	1.61	3.49	1.46	1.32
구 분	연 령 대				<i>t</i>
	30세 이하(N = 187)		30세 이상(N = 43)		
	M	SD	M	SD	
노스텔지어 경험 회상 빈도	3.72	1.50	3.18	1.60	2.10 *

* $p < .05$, ** $p < .01$

노스텔지어 관련 요인들과 적응 및 적응 및 성격 변인들간의 상관관계

(표 24)에는 노스텔지어의 정적 기능과 부정적 기능, 그리고 적응 및 성격 변인들 - 외로움, 성격(외향성, 신경증 성향), 우울, 심리적 안녕감, 삶의 만족도, 그리고 자존감 - 의 상관 관계를 제시하고 있다.

노스텔지어의 정적 기능은 예측했던 것과 동일하게 외로움, 신경증 성향, 그리고 우울과는 유의미한 부정 상관을 보임을 발견하였다. 반면에 노스텔지어의 정적 기능은 예측과 일치하여 외향성, 심리적 안녕감, 삶의 만족도, 그리고 자존감과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노스텔지어의 부정 기능도 예측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외로움, 신경증 성향, 그리고 우울과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갖고 있으며, 외향성, 심리적 안녕감, 삶의 만족도, 그리고 자존감과는 유의미한 부정 상관을 보임을 발견하였다.

표 24. 노스텔지어의 정적 기능, 부정 기능, 그리고 적응 및 성격 변인들의 상관관계

구 분	노스텔지어의 정적 기능	노스텔지어의 부정 기능
외로움	-.35 **	.41 **
외향성	.23 **	-.24 **
신경증 성향	-.24 **	.43 **
우울	-.30 **	.34 **
심리적 안녕감	.43 **	-.32 **
삶의 만족도	.28 **	-.29 **
자존감	.36 **	-.36 **

* $p < .05$, ** $p < .01$

(표 25)에는 노스텔지어를 불러일으키는 경험을 회상하는 순간의 정적 정서와 고각성 부정 정서, 그리고 저각성 부정 정서와 적응 및 성격 변인들 - 외로움, 성격 (외향성, 신경증 성향), 우울, 심리적 안녕감, 삶의 만족도, 그리고 자존감 - 의 상관관계를 제시하고 있다.

노스텔지어를 불러일으키는 경험을 회상할 때의 순간에 체험되는 정적 정서는 외로움, 신경증 성향, 그리고 우울과는 예측 되었던 것처럼 유의미한 부정 상관을 나타냄을 발견하였으며, 반면에 정적 정서는 심리적 안녕감, 삶의 만족도, 그리고 자존감과는 예측과 일치하여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하지만, 외향성과 정적

정서는 유의미하지 않은 정적 상관을 나타냄을 발견하였다.

노스텔지어를 불러일으키는 경험을 회상할 때의 순간에 체험되는 고(高)각성 부정 정서는 외로움, 신경증 성향, 그리고 우울과는 예측되었던 것처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냄을 발견하였으며, 외향성, 심리적 안녕감, 삶의 만족도, 그리고 자존감과는 예측과 일치하여 유의미한 부정 상관을 보였다.

노스텔지어를 불러일으키는 경험을 회상할 때의 순간에 체험되는 저(低)각성 부정 정서도 고(高)각성 부정 정서와 마찬가지로 외로움, 신경증 성향, 그리고 우울과 예측과 일치하여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외향성, 심리적 안녕감, 삶의 만족도, 그리고 자존감과 예측과 동일한 유의미한 부정 상관을 보였다.

표 25. 노스텔지어를 불러일으키는 경험을 회상할 때 순간의 정적 정서, 고각성 부정 정서, 저각성 부정 정서 그리고 적응 및 성격 변인들의 상관관계

구 분	정적 정서	고각성 부정 정서	저각성 부정 정서
외로움	-.31 **	.36 **	.37 **
외향성	.10	-.12 *	-.19 **
신경증 성향	-.26 **	.38 **	.39 **
우울	-.33 **	.28 **	.32 **
심리적 안녕감	.34 **	-.31 **	-.33 **
삶의 만족도	.35 **	-.31 **	-.29 **
자존감	.28 **	-.38 **	-.36 **

* $p < .05$, ** $p < .01$

(표 26)에서와 같이, 노스텔지어의 긍정적 기능을 구성하는 네 요인들 – 긍정적 자존감, 삶의 목적, 사회적 연대성, 그리고 삶의 의미 –은 적응 및 성격

변인들 - 외로움, 성격(외향성, 신경증 성향), 우울, 심리적 안녕감, 삶의 만족도, 그리고 자존감 - 과 전반적으로 일치되는 상관관계를 보임을 알 수 있다.

긍정적 자존감은 외향성, 심리적 안녕감, 삶의 만족도, 그리고 자존감과는 예측된 바처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이며, 외로움, 신경증 성향, 그리고 우울과는 예측된 것처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나타낸다.

삶의 목적은 긍정적인 노스텔지어의 기능으로서, 외향성, 심리적 안녕감, 삶의 만족도, 그리고 자존감과는 예측과 일치하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며, 외로움, 신경증 성향, 그리고 우울과는 예측과 같은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사회적 연대성은 노스텔지어의 긍정적인 기능을 구성하는 한 요인으로서, 외향성, 심리적 안녕감, 삶의 만족도, 그리고 자존감과 예측과 동일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이며, 외로움, 신경증 성향, 그리고 우울과는 예측과 일치한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삶의 의미는 노스텔지어의 긍정적인 기능의 요인으로서, 외향성, 심리적 안녕감, 삶의 만족도, 그리고 자존감과는 예측과 일치하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며, 외로움, 신경증 성향, 그리고 우울과는 예측과 같은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적응 및 성격 변인들과 노스텔지어를 불러일으키는 경험 회상 빈도의 상관관계

(표 27)에서 노스텔지어를 불러일으키는 경험을 회상하는 빈도와 적응 및 성격변인들과의 상관관계는 비록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외로움, 우울, 심리적 안녕감, 삶의 만족도, 외향성, 그리고 신경증 성향과는 정적 상관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으며,

자존감과는 부적 상관을 갖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외로움, 우울, 심리적 안녕감, 삶의 만족도, 외향성, 그리고 신경증 성향이 증가할수록, 노스텔지어를 불러일으키는 경험을 회상하는 빈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반대로 자존감이 증가할수록 노스텔지어를 불러일으키는 경험을 회상하는 빈도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6. 노스텔지어의 긍정적 기능 네 요인과 적응 및 성격 변인들의 상관관계

구 분	긍정적 자존감	삶의 목적	사회적 연대성	삶의 의미
외로움	-.41 **	-.30 **	-.29 **	-.34 **
외향성	.29 **	.22 **	.21 **	.25 **
신경증 성향	-.33 **	-.25 **	-.16 *	-.32 **
우울	-.45 **	-.40 **	-.35 **	-.41 **
심리적 안녕감	.42 **	.37 **	.30 **	.39 **
삶의 만족도	.39 **	.29 **	.37 **	.35 **
자존감	.37 **	.35 **	.27 **	.38 **

* $p < .05$, ** $p < .01$

표 27. 외로움, 우울, 심리적 안녕감, 삶의 만족도, 자존감, 외향성, 신경증 성향과 노스텔지어 경험 회상 빈도의 상관관계

구 분	노스텔지어 경험 회상 빈도
외로움 평균값	.026
우울 평균값	.033
심리적 안녕감 평균값	.031
삶의 만족도 평균값	.066
자존감 평균값	-.041
외향성 평균값	.065
신경증 성향 평균값	.030

외로움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 미치는 노스텔지어의 정적 기능의 매개효과 검증

외로움의 정서가 노스텔지어의 부정적 정서를 절충시키는 정서 조절(Wildschut et al., 2006) 효과로 인하여 감소됨으로 심리적 안녕감이 회복될 수 있는지는 Baron & Kenny(1986)가 제안에 따라서 위계적인 매개 회귀 분석 방식을 적용하여 검증하였고, 보완적으로, Sobel 검정을 통해서 매개효과를 재확인하였다. 편의상 통제 변수의 경로를 생략하여, (표 28)의 매개 분석 결과를 (그림1)과 같이 요약하였다.

모델 1: 회귀 모델의 가정을 충족시키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예측 변수인 외로움과 매개 변수인 노스텔지어의 긍정적 기능의 상관관계($r = -.39, p < .001$)와 예측 변수인 외로움과 결과 변수인 심리적 안녕감($r = -.66, p < .001$)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각각의 상관관계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서, 회귀 모델 가정이 충족됨을 확인하였다. 한편, 외로움(예측 변수)과 노스텔지어의 정적 기능(매개 변수)의 관계에서 예측 변수가 유의한지를 회귀분석을 통해서 재확인한 결과 회귀계수($b = -.58, t = -6.50$)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신경증 성향의 영향을 통제한 후에 외로움(예측 변수)과 심리적 안녕감(결과 변수)의 관계에서 예측 변수가 유의한지를 검증해보았다. (표 28)에 제시된 것과 같이 신경증 성향이 통제된 후에도 예측 변수인 외로움과 결과 변수인 심리적 안녕감이 유의한 인과적 관계($b = -.39, p < .001$)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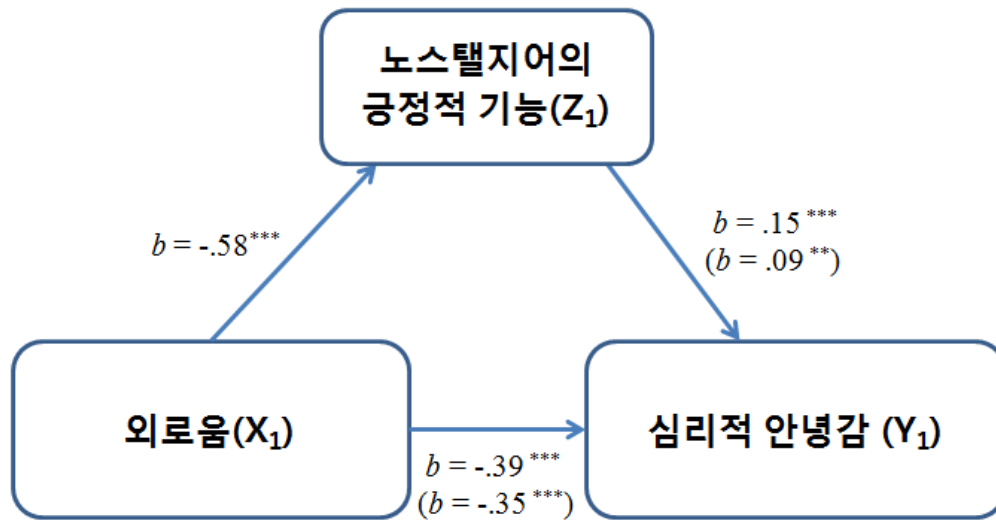


그림 1. 심리적 안녕감을 위한 다중회귀분석을 통한 매개 모델

표 28.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을 통한 매개효과 검증

구 분	Model 1 B (Std. error)	Model 2 B (Std. error)	Model 3 B (Std. error)
Constant	4.81(.09)***	3.78(.15)***	4.39(.16)***
신경증 성향	-.16(.04)***	-.28(.03)***	-.14(.04)***
외로움	-.39(.04)***		-.35(.05)***
노스텔지어의 긍정적 기능		.15(.03)***	.09(.03)**
R^2	.48	.37	.50
ΔR^2			.13
Adj. R^2	.47	.36	.50
F-value	104.30***	67.04***	76.57***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모델 2: 회귀 모델의 가정 검토로서 매개 변수인 노스텔지어의 긍정적 기능과 결과 변수인 심리적 안녕감의 상관 관계를 살펴보고, 또한 통제 변수인 신경증 성향과 결과 변수인 심리적 안녕감의 상관 관계를 조사해보았다. 그 결과 각각의 상관관계($r = .43$; $r = .43$)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p < .001$). 신경증 성향이 통제된 후에도 노스텔지어의 긍정적 기능(매개 변수)과 심리적 안녕감(결과 변수)의 관계($b = .15$, $p < .001$)는 유의하였다. 모델 1, 2의 검정 결과, 매개 모델의 전제 조건이 충족되었기 모델1에 노스텔지어의 긍정적 기능(매개 변수)를 포함한 매개 모델을 다음 모델 3과 같이 분석하였다.

모델 3: 매개 변수인 노스텔지어의 긍정적 기능을 포함시킨 후에 예측 변수인 외로움의 회귀 계수 값이 감소하면서, 매개 변수인 노스텔지어의 긍정적 기능의 유의성이 유지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모델 3을 분석하였다. 모델 2에서 결과 변수인 심리적 안녕감과 유의한 인과적 관계($p < .001$)를 보였던 예측 변수인 외로움의 회귀 계수 $-.39$ 가 매개 변수인 노스텔지어의 긍정적 기능을 추가한 모델 3에서는 심리적 안녕감(결과 변수)과의 회귀 계수가 $-.35$ 로 감소하였음을 발견하였다. 모델 2에서 모델 3으로 종속 변수 변동의 설명력의 변화는(ΔR^2) $.13$ 이며, ΔR^2 에 대한 F 값은 76.57 이 $p < .001$ 수준에서 유의하므로, 노스텔지어의 긍정적 기능의 부분적인 매개 기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외로움이 심리적 안녕감에 대하여 갖는 영향에 대하여 노스텔지어의 긍정적 기능의 매개효과가 부분적으로 존재(partial mediation)함을 알 수 있다(Baron & Kenny, 1986). 추가적으로 Sobel 검정을 통해서 노스텔지어의 매개 효과가 유의함($Z = -4.76$, $p < .001$)을 재확인되었다(Preacher & Hayes, 2004).

외로움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 미치는 노스텔지어의 정적 기능의 매개효과 검증

(표 29)에서와 같이, 부정적 정서를 감소시키는 노스텔지어 정서의 매개 효과 (Wildschut et al., 2006)로 인하여 외로움이 감소됨으로 삶의 만족도가 회복될 수 있는지는 종속 변수를 심리적 안녕감(Y_1)으로 설정한 모델처럼 위계적인 매개 회귀 분석 방식을 적용하였고, Sobel 검정을 통해서 보완적으로 매개 효과를 재확인하였다. 매개 분석 결과는 (표 29)와 같으며, 편의상 통제 변수의 경로를 생략하여, (그림 2)와 같이 요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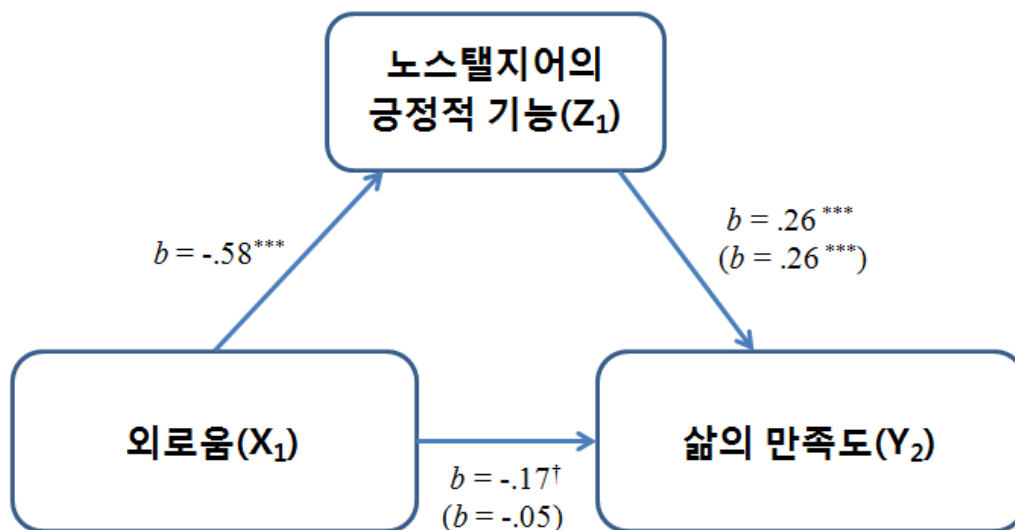


그림 2. 삶의 만족도를 위한 다중회귀분석을 통한 매개 모델

모델 1: 회귀 모델의 가정을 충족시키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예측 변수인 외로움과 매개 변수인 노스텔지어의 긍정적 기능의 상관관계($r = -.39, p < .001$)와 예측 변수인 외로움과 결과 변수인 삶의 만족도의 상관관계($r = -.33, p$

<.001)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각각의 상관관계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회귀 모델 가정이 충족됨을 검증하였다. 다음으로, 신경증 성향의 영향을 통제된 후에 외로움(예측 변수)과 삶의 만족도(결과 변수)의 인과적 관계에서 예측 변수가 유의한지를 검증해보았다. (표 29)에 제시된 것과 같이 신경증 성향이 통제된 후에도 예측 변수인 외로움과 결과 변수인 삶의 만족도가 한계적으로 인과적 관계($b = -.17, p < .10$)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29. 삶의 만족도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을 통한 매개효과 검증

구 분	Model 1 B (Std. error)	Model 2 B (Std. error)	Model 3 B (Std. error)
Constant	4.32(.20) ***	3.02(.28) ***	3.11(.32) ***
신경증 성향	-.35(.08) ***	-.33(.06) ***	-.31(.07) ***
외로움	-.17(.09) †		-.05(.09)
노스텔지어의 긍정적 기능		.26(.05) ***	.26(.05) ***
R^2	.18	.25	.25
ΔR^2			.001
Adj. R^2	.17	.36	.24
F-value	25.27 ***	38.73 ***	25.85 ***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모델 2: 회귀 모델의 가정 검토로써 매개 변수인 노스텔지어의 긍정적 기능과 결과 변수인 삶의 만족도의 상관 관계($r = .40, p < .001$)를 살펴보고, 또한 통제 변수인 신경증 성향과 결과 변수인 삶의 만족도의 상관 관계($r = -.41, p < .001$)를 확인해보았다. 그 결과 각각의 상관관계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신경증 성향이 통제된 후에도 노스텔지어의 긍정적 기능(매개 변수)과 삶의 만족도(결과 변수)의

관계($b = .26, p < .001$)는 유의하였다. 모델 1, 2의 검정 결과, 매개 모델의 전제 조건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모델1에 노스텔지어의 정적 기능(매개 변수)를 포함한 매개 모델을 다음 모델 3과 같이 분석하였다.

모델 3: 매개 변수인 노스텔지어의 긍정적 기능을 포함시킨 후에 예측 변수인 외로움의 회귀 계수 값이 감소하면서, 매개 변수인 노스텔지어의 긍정적 기능의 유의성이 유지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모델 3을 분석하였다. 모델 2에서 결과 변수인 삶의 만족도와 한계 수준에서 유의한(marginally significant) 인과적 관계($p < .10$)를 보였던 예측 변수인 외로움의 회귀 계수 $-.17$ 가 매개 변수인 노스텔지어의 긍정적 기능을 추가한 모델 3에서는 삶의 만족도(결과 변수)와의 회귀 계수가 유의미하지 않은 $-.05$ 로 크게 감소하였음을 발견하였다. 모델 2에서 모델 3으로 종속 변수 변동의 설명력 변화는(ΔR^2) $.001$ 이며 ΔR^2 에 대한 F 값 25.85 가 $p < .001$ 수준에서 유의하므로, 노스텔지어의 긍정적 기능의 완전한 매개 역할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외로움이 삶의 만족도에 대하여 갖는 영향에 대해서 노스텔지어의 긍정적 기능의 완전한 매개 역할(complete mediation; Baron & Kenny, 1986)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추가적으로 Sobel 검사(Preacher & Hayes, 2004)로 노스텔지어의 완전한 매개 효과가 유의함($Z = -4.65, p < .001$)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위계적인 매개 회귀 분석 방식을 적용하여 부정적인 정서를 조절하는 노스텔지어의 정서 회복 기능(Wildschut et al., 2006)으로 인하여 감소된 외로움이 삶의 만족도를 회복하는데 기여하고 하고 있다.

외로움과 자존감의 관계에 미치는 노스텔지어의 정적 기능의 매개효과 검증

(표 30)과 같이 위계적인 매개 회귀 분석 방식을 적용하여 부정 정서를 조절하는 노스텔지어의 정서 조절(Wildschut et al., 2006)의 매개효과로 인하여 외로움이 감소됨으로 자존감이 회복될 수 있음을 검증하였다. 편의상 통제 변수의 효과를 생략하여, 분석 결과를 (그림 3)과 같이 요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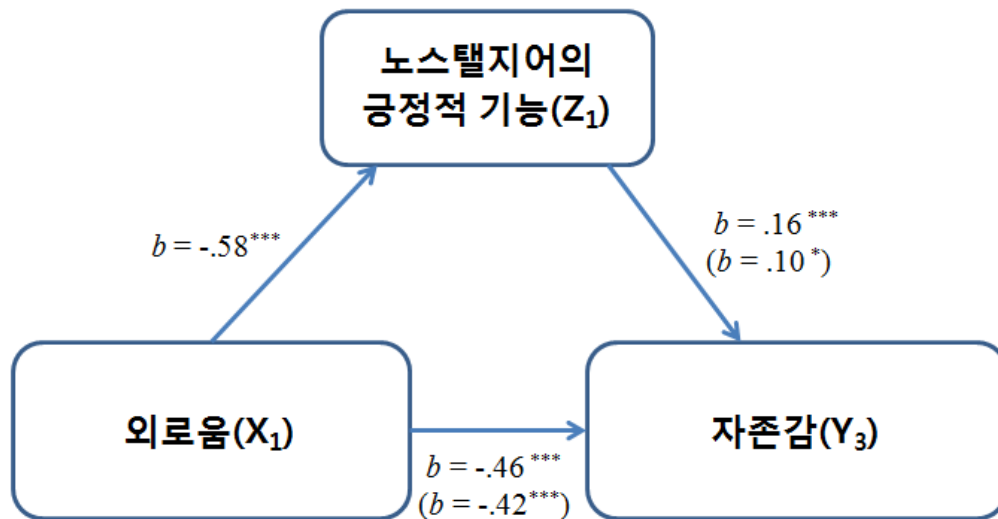


그림 3. 자존감을 위한 다중회귀분석을 통한 매개 모델

모델 1: 회귀 모델의 가정을 충족시키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우선 예측 변수인 외로움과 매개 변수인 노스텔지어의 긍정적 기능의 상관 관계와 예측 변수인 외로움과 결과 변수인 자존감의 상관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각각의 상관 관계($r = -.39$; $r = -.63$)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서($p < .001$) 회귀 모델 가정이 충족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신경증 성향의 영향을 통제한 후에 외로움(예측 변수)과 자존감(결과 변수)의 관계에서 예측 변수가 유의한지를 검증해보았다. 표

30에 제시된 것과 같이 신경증 성향이 통제된 후에도 예측 변수인 외로움과 결과 변수인 자존감이 유의한 인과적 관계($b = -.46, p < .001$)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30. 자존감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을 통한 매개효과 검증

구 분	Model 1 B (Std. error)	Model 2 B (Std. error)	Model 3 B (Std. error)
Constant	5.42(.13) ***	4.24(.21) ***	4.97(.22) ***
신경증 성향	-.28(.05) ***	-.43(.05) ***	-.26(.05) ***
외로움	-.46(.06) ***		-.42(.06) ***
노스텔지어의 긍정적 기능		.16(.04) ***	.10(.04) *
R^2	.47	.38	.48
ΔR^2			.10
Adj. R^2	.46	.38	.47
F-value	99.65 ***	70.61 ***	70.25 ***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모델 2: 회귀 모델의 가정 검토로서 매개 변수인 노스텔지어의 긍정적 기능과 결과 변수인 자존감의 상관 관계($r = .39, p < .001$)를 살펴보았고, 또한 통제 변수인 신경증 성향과 결과 변수인 자존감의 상관 관계($r = .48, p < .001$)를 확인해보았다. 그 결과 각각의 상관관계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신경증 성향이 통제된 후에도 노스텔지어의 긍정적 기능(매개 변수)과 자존감(결과 변수)의 관계($b = .16, p < .001$)는 유의하였다. 모델 1, 2의 검정 결과, 매개 모델의 전제 조건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모델 1에 노스텔지어의 긍정적 기능(매개 변수)을 포함한 매개 모델을 다음 모델 3과 같이 분석하였다.

모델 3: 매개 변수인 노스텔지어의 긍정적 기능을 포함시킨 후에 예측 변수인 외로움의 회귀 계수 값이 감소하면서, 매개 변수인 노스텔지어의 긍정적 기능의 유의성이 유지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모델 3을 분석하였다. 모델 2에서 결과 변수인 자존감과 유의한 인과적 관계($p < .001$)를 보였던 예측 변수인 외로움의 회귀 계수 $-.46$ 가 매개 변수인 노스텔지어의 긍정적 기능을 추가한 모델 3에서는 자존감(결과 변수)과의 회귀 계수가 $-.42$ 로 크게 감소하였음을 발견하였다. 모델 2에서 모델 3으로 종속변수 변동의 설명력 변화는(ΔR^2) $.10$ 이며 ΔR^2 에 대한 F 값 70.25 이 $p < .001$ 수준에서 유의하므로, 노스텔지어의 긍정적 기능의 부분적인 매개 기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외로움이 자존감에 대하여 갖는 영향에 대하여 노스텔지어의 긍정적 기능의 매개효과가 부분적으로 존재(partial mediation)함을 알 수 있다(Baron & Kenny, 1986). 추가적으로 Sobel 검사로 노스텔지어의 매개 효과가 유의함($Z = -4.53$, $p < .001$)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Preacher & Hayes, 2004).

논 의

노스텔지어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가장 근본이 되는 노스텔지어의 내용과 촉발인 (Wildschut et al., 2006)에 대해서 탐색적인 연구를 실시하였다. 노스텔지어의 내용은 노스텔지어를 불러일으키는 경험을 회상할 때 자신은 누구이며, 노스텔지어 경험의 중심에 무엇이 있으며, 감정의 변화가 있었다면 어떠한 감정의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자주 경험을 회상하는지에 대하여 초점을 두었다.

노스텔지어를 불러일으키는 경험의 촉발인은 어떠한 상황에서 노스텔지어를 느끼게 하는 경험을 회상하게 되는지에 대해 알고자 하였다.

이번 연구에서는 노스텔지어가 정서적인 자원으로써 어떠한 요인들로써 구성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요인 분석을 통하여 우선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탐색적인 요인분석으로부터 추출된 요인들을 기반으로 하여서 실질적으로 일반적인 삶 속에서의 생활과 어떠한 관련이 있을지 알아보기 위하여, 적응 및 성격 변인들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기존 연구들에서 노스텔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발견되어 온 외로움, 성격, 우울, 심리적 안녕감, 삶의 만족도, 그리고 자존감과 노스텔지와와의 관계를 검토해보았다.

노스텔지어가 혼합된 정서로써 (Hepper et al., 2012) 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 그리고 정적인 기능과 부정적인 기능으로 구성되었을 때, 성별과 연령대에서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하였다. 또한, 노스텔지어를 불러일으키는 경험을 회상하는 빈도가 노스텔지와 깊은 연관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Wildschut et al., 2006) 아직 명확하게 탐색하지 못하였기에, 이번 연구에서는 노스텔지어를 불러일으키는 경험을 회상한 후에 평가된 적응 및 성격 변인들과 노스텔지어를 불러일으키는 경험을 회상하는 빈도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우선적으로 노스텔지의 내용에 대하여 자신이 주인공이라고 답한 참여자들이 다수였다. 연구 1과 이전 연구 결과와 일치한 이번 연구 결과는 노스텔지가 자신과 깊은 관련이 있는 정서임을 입증해준다 (Routledge et al., 2011). 노스텔지어를 불러일으키는 경험의 중심에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사람’이 있다는 발견이 재 확인됨으로써, 노스텔지는 사회적 정서 (Hicks, Schlegel, & King,

2010)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노스텔지어를 불러일으키는 경험에 대한 회상 전과 후에 부정 정서에서 정적 정서로 변화하였다고 보고한 참여자들이 그 반대인 참여자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다는 사실은 노스텔지어가 긍정적인 기능을 갖고 있는 경향이 더 강함(Wildschut et al., 2006; Routledge et al., 2011)을 알 수 있다.

노스텔지어를 불러일으키는 경험을 회상하게 하는 가장 주된 촉발인은 ‘활동하지 않고 잠잠히 있을 때’와 ‘익숙하거나 낯익은 사건들을 경험할 때’로서 연구 1과 가장 주된 두 가지의 촉발인에 대해서 일치한 결과를 얻었다. Wildschut와 동료들 (2006)이 가장 주된 촉발인이 부정적인 정서라고 보고하였지만, 이번 연구에서는 세 번째로 주된 촉발인으로서 발견됨으로써, 한국과 서양의 노스텔지어 정서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노스텔지어의 긍정적 기능을 구성하는 네 요인(Hepper et al., 2012)으로서 긍정적 자존감, 삶의 목적, 사회적 연대성, 그리고 삶의 의미를 탐색적 요인 분석을 통하여 발견하였다. 비록 이전 Hepper와 동료들(2012)의 연구 결과와 동일한 네 요인은 아니지만, 노스텔지어의 인지적이며 정서적인 특성이 긍정적인 기능으로서 개념화 될 수 있음에 의의가 있다고 본다.

노스텔지어의 정적인 기능과 부정적인 기능이 분명한 두 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 정적 정서와 고각성 부정 정서, 그리고 저각성 부정 정서도 명확하게 구분된 세 요인으로 나타남으로써, 노스텔지어에게 긍정적인 기능이 강하게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노스텔지어의 부정적인 기능도 함께 존재할 수 있다는 이전 연구 결과들 (Wildschut et al., 2006; Hepper et al., 2012)과 일치한 결과를 발견할 수 있었다. 즉, 노스텔지어가 혼합된 정서 (Batcho, 2007; Verplanken, 2012)임을 확증할 수

있었다.

노스텔지어를 구성하는 정적 기능과 부정적 기능, 정적 정서와 고-저각성 부정적 정서, 그리고 긍정적인 기능 모두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연령대에 따른 부분적인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 할 수 있었다. 노스텔지어의 정적 기능은 고(高)연령대(31세~70세)에서 더 높게 나타났으며, 부정적 기능은 저(低)연령대(10세~30세)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높은 연령대일수록 부정적인 경험들이 지혜를 발전하고 축적할 수 있는 기회로 변화될 수 있도록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을 ‘다시 이야기 구성’하는 것이 가능함을 추론해 볼 수 있다 (Randall & Kenyon, 2001). 또한, 노스텔지어의 정적 정서가 31세~70세에서 더 높게 나타나며, 반면에 저각성 부정적 정서가 10세~30세에서 더 높다는 발견도 고(高)연령대에서의 통합적인 회상을 하는 경향은 혜택을 주는 영향이 있으나, 저(低)연령대에서의 반추적인 회상을 하는 경향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음을(Coleman, 1986; Wong & Watt, 1991) 시사한다. 같은 맥락에서, 노스텔지어의 긍정적인 기능을 구성하는 긍정적 자존감, 삶의 목적, 사회적 연대성, 그리고 삶의 의미 모두 고(高)연령대에서 더 높게 경험되고 있음을 밝힐 수 있었다. 이처럼, 높은 연령대에서의 노스텔지어는 삶의 이야기를 구성하거나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을 함을 알 수 있다 (McAdams, 2001).

노스텔지어를 불러일으키는 경험을 회상하는 빈도에 대한 차이가 연령대와 성별간에 있는지 살펴본 결과, 성별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지 않지만 연령대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노스텔지어는 성별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경험되는 일반적인 정서 (Batcho, 1995, 1998)이면서 동시에 연령대에 따라서는 차이를 보이는 정서(Bauer & McAdams and Sakaeda, 2005)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노스텔지어를 구성하는 정적인 요인들 - 정적 정서, 정적 기능, 그리고 긍정적인 기능 - 은 외로움, 우울, 그리고 신경증 성향과의 부적 상관을 갖고 있으며, 반면에 외향성, 심리적 안녕감, 삶의 만족도, 그리고 자존감과는 정적 상관을 갖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즉, 노스텔지어가 정적 정서의 저장고로서의 기능을 하며 (Wildschut et al., 2006) 사회적 연대성과 정적인 관계가 있기에 (Arndt et al., 2005), 외향성, 심리적 안녕감, 삶의 만족도, 그리고 자존감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

노스텔지어를 구성하는 부적인 요인들 - 고(高)-저(低)각성 부적 정서와 부적 기능 - 이 외향성, 심리적 안녕감, 삶의 만족도, 그리고 자존감과는 부적 상관을 나타내며, 반대로 외로움, 우울, 그리고 신경증 성향과는 정적 상관을 보임을 찾을 수 있었다. 이처럼 부적 노스텔지어는 과거에 대한 슬픔과 갈망으로 말미암아 현재 삶에 적응하려는 노력이 심각하게 저하되는 지속적인 압도적인 갈망으로서 (Peters, 1985) 기능할 수 있으며, 삶에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노스텔지어를 불러일으키는 경험을 회상한 후에 측정된 외로움, 우울, 심리적 안녕감, 삶의 만족도, 외향성, 그리고 신경증 성향과 노스텔지어를 불러일으키는 경험을 회상하는 빈도는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반면에 자존감은 노스텔지어를 불러일으키는 경험을 회상하는 빈도와 유의미하지 않은 부적 상관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비록 모두 유의미하지 않은 상관관계이지만, 이전의 연구 결과들에 의해 지지되는 몇 가지의 시사점을 찾을 수

있었다. 우선, 외로움과 우울을 느낄 때 사람들은 노스텔지어를 느낌으로써 부정적인 정서를 감소시키려는 경향이 있으며, 반대로 과거에 대한 감상적인 그리움인 노스텔지어의 정서를 느낄 때에는 심리적인 안녕감과 삶에 대한 만족도가 회복될 수 있음을 생각해볼 수 있다. 또한, 노스텔지어가 사회성이 높은 정서이기에 외향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노스텔지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회적 경험들이 다수일 수 있으며 더 빈번히 노스텔지어를 경험할 수 있음을 고려해볼 수 있다. 그리고, 신경증 성향이 높은 사람일수록 과거에 대한 감상적인 그리움의 정서인 노스텔지어를 불러일으키는 경험을 빈번히 떠올리며 현재의 부정적인 정서를 감소시키려는 경향이 있음을 생각해볼 수 있으며, 자존감이 낮을 때일수록 과거에 대한 감상적인 그리움을 느낌으로서 정서를 회복하고자 하는 빈도가 증가될 수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노스텔지어가 부정적 정서를 상쇄하며 회복적인 기능을 담당한다는 Wildschut와 동료들(2006)의 연구 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이번 연구에서도 노스텔지어의 긍정적 기능을 확인해볼 수 있었다. 외로움은 노스텔지어의 긍정적 기능의 매개효과로 인하여 심리적 안녕감, 삶의 만족도, 그리고 자존감에 대하여 갖는 영향이 상쇄되었음을 발견하였다. 즉, 노스텔지어의 긍정적 기능은 부정적 정서와 정서적 회복의 매개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종 합 논 의

종합결론 및 시사점

노스텔지어는 ‘감상적인, 그리움, 그리고 과거’의 중심적인 특징들을 포함하며, 주로 좋은 기억을 포함한다고 한다(Hepper et al., 2012). 과거에 노스텔지어를 정신적인 질병으로 바라보는 부정적인 견해로 인하여 (Batcho, 1998; McCann, 1941; Fodor, 1950) 노스텔지어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미비해왔지만, 최근 들어서 노스텔지어가 일반적인 정서적 경험이면서 긍정적인 심리적 기능을 갖고 있음을 제시하는 연구결과들이 발견되기 시작하였다 (Wildschut et al., 2006; Hepper et al., 2011). 그러므로 이번 연구에서는 노스텔지어의 현상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위하여 노스텔지어의 내용, 촉발인, 그리고 기능에 대하여 탐색적인 연구를 시행하였다. 특히, 노스텔지어가 중요한 심리적 기능을 갖고 있다는 연구 결과들 (Sedikides et al., 2008; Routledge et al., 2011)을 토대로 하여 노스텔지어가 심리적인 자원으로써 어떠한 긍정적인 기능을 갖고 있는지 면밀히 탐구해보고자 하였다. 일상적인 생활에서 체험될 수 있는 다양한 정서들로 구성된 노스텔지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제시된 적응 및 성격 변인들과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노스텔지어가 실질적으로 기능으로써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연구 1에서는 노스텔지어가 ‘과거에 대한 감상적인 그리움’이라는 정의를 기반으로 하여 노스텔지어의 내용과 촉발인, 그리고 기능 (Wildschut et al., 2006)에 대하여 탐색적인 연구를 하였다. 노스텔지어의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기 위하여 과거를 불러일으키는 경험 속에서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에 대해서 물었을 때, 대 다수

가 자신이 주인공이라고 응답함으로써 노스탤지어는 자신이 중심이 되는 정서적 경험 (Sedikides et al., 2004)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과거에 대한 감상적인 그리움을 불러일으키는 경험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다는 발견은 노스탤지어가 사회적인 정서라는 이전 연구결과들 (Cavanaugh, 1989; Cappeliez & O’Rourke, 2006)을 확증해주었다. 또한, 노스탤지어를 느끼게 한 과거의 경험을 회상함으로써, 회상하기 전에 느꼈던 부정적 정서가 정적 정서로 전환되었다고 보고한 사람이 반대인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음을 발견함으로써 노스탤지어의 잠재적인 긍정적인 기능에 대한 탐색적인 확인을 할 수 있었다. 노스탤지어를 불러일으키는 가장 주된 촉발인이 ‘익숙하거나 낯익은 사건들’이라는 발견은 ‘부정적인 감정’을 가장 주된 촉발인으로 보고한 Wildschut와 동료들(2006)의 연구결과와는 분명한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

노스탤지어의 긍정적인 기능에 대하여 기초적으로 탐색해보기 위하여 Hepper와 동료들 (2012)이 개발한 State Functions of Nostalgia Scale을 이번 연구에서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노스탤지어의 긍정적 기능을 구성하는 네 요인 - 긍정적 정서, 자존감, 사회적 연대성, 그리고 삶의 의미 - 이 이전 연구에서와 같이 독립적인 차원에서 분류되어 요인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척도 16개 문항에 대한 탐색적인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이전 연구와 동일한 노스탤지어의 긍정적 기능에 대한 내적 구조를 발견할 수는 없었지만, 척도 문항들이 일관성 있게 내용적으로 타당한 개념의 요인을 구성함으로써 노스탤지어의 긍정적 기능을 설명하였다. 그렇지만, 이와 같이 이전 연구와 상이한 결과는 작은 참여자 수로 인한 것일수 있다.

노스탤지어의 긍정적인 기능을 구성하는 긍정적 자존감, 긍정적 정서, 사회적 연대성, 그리고 삶의 의미가 성별과 연령대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지에 대하여 t

검정을 실시하여 관찰해보았다. 대체적으로 남자의 평균이 여자의 평균보다 고르게 네 노스텔지어의 긍정적 기능 요인들에서 높은 경향을 발견할 수 있었지만, 유의미한 성별 차이는 ‘긍정적 정서’에서만 발견 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여자보다 남자가 노스텔지어를 불러일으키는 경험을 통하여 긍정적 정서를 느끼는 경향이 더 강함을 알 수 있다. 성별 차이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던 이전 연구들 (Batcho, 1995, 2007)과 다른 연구 결과로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저(低)연령대(10세~30세)와 고(高)연령대(31세~70세)에 따른 노스텔지어의 긍정적인 기능의 차이가 있는지 보았을 때, 비록 네 요인에서의 차이가 모두 유의미하지는 않았지만, 고연령대에서 노스텔지어의 긍정적인 기능이 더 많이 경험됨을 발견할 수 있었다.

연구 2에서도 노스텔지어를 불러일으키는 과거의 경험 속에서 자신이 주인공이며, 경험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으며, 노스텔지어를 느끼게 하는 경험을 회상하기 전과 후 사이에 감정의 변화가 있었다면 부정적인 정서에서 긍정적인 정서로 변화하였다는 응답이 다수를 이루었다. 또한 노스텔지어를 불러일으키는 과거 경험의 촉발인은 주로 ‘활동하지 않고 잠잠히 있을 때’와 ‘익숙하거나 낯익은 사건들을 경험할 때’로써 연구 1의 결과와 상응함을 알 수 있었다. ‘부정적인 정서’가 가장 주된 촉발인으로서 보고된 이전 연구들과 비교할 때, 노스텔지어 정서적 체험에 대한 서양인들과 동양인들의 차이가 유의미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노스텔지어에 대한 정적 정서와 부정 정서, 정적 기능과 부정 기능, 그리고 긍정적인 정서의 네 요인을 탐색적인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추출하였다. 노스텔지어의 정적 정서와 부정 정서는 독립적인 세 요인 - 정적 정서, 고(高)각성 부정 정서, 저(低)각성 부정 정서 - 으로 추출되었으며, 노스텔지어의 정적 기능과 부정 기능

(Wildschut et al., 2006)도 명확하게 구분된 두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Hepper와 동료들 (2012)의 긍정적인 노스텔지어 기능을 구성하는 기존의 네 요인들과 세부적으로 동일한 내적 구조는 아니지만 문항들이 일관적인 내용 타당성을 갖고 있는 개념으로 구성되어 노스텔지어의 긍정적 기능을 설명함을 확인하였다.

위의 요인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노스텔지어를 구성하는 정서적 요인들과 기능적 요인들이 성별과 연령대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데 대하여 평균비교 (t 검정)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노스텔지어의 요인들에 대하여 유의미한 차이를 갖고 있지 않음을 발견 할 수 있었다. 반면에 노스텔지어의 정서적 요인들과 기능적 요인들에 대하여 10세~30세(저연령대)와 31세~70세(고연령대) 사이에서 유의미한 평균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31세~70세가 10세~30세보다 정적 정서와 정적 기능에서 더 높은 평균을 보이며, 저각성 부적 정서와 부적 기능에 대해서는 10세~30세가 31세~70세보다 더 높은 평균을 보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고연령대에서는 노스텔지어를 불러일으키는 경험을 회상함으로써 지난 세월에 대한 수용적인 사고를 하는 경향이 저연령대보다 더 강함을 추론할 수 있으며, 반면에 저연령대에서는 노스텔지어를 불러일으키는 경험을 회상하는 사고 과정이 통합적이고 수용적이기보다는 반추적이고 비관적일 수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요약하면, 나이가 들면서 자신의 고유한 삶이 필연적으로 그래야만 했으며 다른 대안을 허락하지 않았다 (Erikson, 1963)는 삶에 대한 수용적인 사고가 발전될 수 있음을 확증해 주는 결과였다.

노스텔지어의 정적 정서, 정적 기능, 그리고 긍정적인 기능이 외로움, 신경증 성향, 우울과는 부적 상관을 나타내며, 반면에 외향성, 심리적 안녕감, 삶의 만족도,

그리고 자존감과 정적 상관을 갖는다는 발견은 이전 연구들과 일치하여 (Routledge et al., 2011; Hepper et al., 2012) 노스텔지어가 심리적인 자원으로써 긍정적인 심리적 기능을 갖고 있음을 증명하였다. 또한, 노스텔지어의 부적 정서와 부적 기능이 외로움, 신경증 성향, 우울과는 정적 상관을 보이며, 외향성, 심리적 안녕감, 삶의 만족도, 그리고 자존감과도 부적 상관을 나타낸다는 발견은 노스텔지어가 잠재적으로 부정적인 기능을 발휘함으로써 삶 속에서 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노스텔지어를 불러일으키는 경험을 회상한 후 보고된 낮은 자존감이 노스텔지어를 불러일으키는 경험을 회상하는 빈도와 부적 상관을 갖고 있다는 발견은 현재 자신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할 때에는 과거를 회상함으로써 느껴지는 감상적인 그리움인 노스텔지어를 체험함으로써 자존감을 회복하려는 심리적인 매커니즘이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노스텔지어의 긍정적인 기능이 정서 조절 역할(Wildschut et al., 2006)을 할 수 있음을 검증해보고자 위계적 매개 모델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부적 정서인 외로움이 심리적 안녕감, 삶의 만족도, 그리고 자존감에 대하여 갖는 영향이 노스텔지어의 긍정적 기능의 매개효과에 의하여 상쇄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노스텔지어의 긍정적인 심리적 기능을 통하여 부적인 정서적 체험들이 완화되고 긍정적인 정서적 상태로 회복될 수 있음(Cappeliez & Rourke, 2006)을 시사한다.

연구의 제한 및 추후 연구과제

우선적으로 참여자들의 수가 300명 이하였으므로, 이번 연구에서의 결과가 일반화 될 수 있는 범위에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러므로, 이번 연구를 확장하는 후속 연구에서는 참여자 수를 확보하여 연구 결과를 일반화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본다. 또한 참여자들이 성별과 연령대에 따라서 균등하게 모집되어서 연구 결과가 한 특정한 연령대 또는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유의해야겠다.

노스텔지어가 범문화적인 정서임 (Hart et al., 2011; Routledge et al., 2008; Wildschut et al., 2006; Zhou et al., 2008)을 고려할 때, 한국인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노스텔지어 현상을 탐구하기 보다는 다른 문화권의 참여자들이 겪는 노스텔지어 현상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비교 연구를 가능케 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마지막으로, 노스텔지어가 긍정적 기능과 정서, 그리고 부정적 기능과 정서 모두를 잠재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정서임을 고려할 때, 정상적인 노스텔지어와 병리적인 노스텔지어의 차이 (Kaplan, 1987; Peters, 1985)가 어떤 양상과 수준에서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노스텔지어를 심리적인 측면에서 이해하고자 노스텔지어의 내용, 촉발인, 그리고 기능에 대하여 탐구하였고, 성별과 연령대에 따른 노스텔지어의 정서적이고 기능적인 현상의 차이, 노스텔지어와 깊은 연관이 있다고 발견된 적응 및 개인차 변인들과 노스텔지어의 정서적 그리고 기능적 요인들과의 상관관계, 노스텔지어를 불러일으키는 경험을 회상하는 빈도와 적응 및 개인차 변인들과의 상관관계, 노스텔지어의 긍정적 기능의 정서 조절 매개 역할에 대하여 확인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참 고 문 헌

- 민경환. (2002). 성격심리학: 법문사.
- 안신능. (2006). 자기 개념에 따른 자기 불일치와 삶의 만족도의 인과적 관계. 국내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서울.
- 이영호, & 송종용. (1991). BDI, SDS, MMPI-D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0(1), 98-113.
- 이훈진, & 원호택. (1995). 편집증적 경향, 자기개념, 자의식 간의 관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심리학회 '95 연차대회 학술발표논문집, 277-290.
- 유태용, 김명언, & 이도형. (1997). 5요인 성격검사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10(1), 85-102.
- 홍두승. (2008). 사회조사분석. 제 3판. 다산출판사.
- Arndt, J., Routledge, C., Greenberg, J., & Sheldon, K. M. (2005). Illuminating the dark side of creative expression: Assimilation needs and the consequences of creative action following mortality salienc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1, 1327-1339.
- Barrett, F., Grimm, K. and Robins, R., Wildschut, T., and Sedikides, C., & Janata, P. (2010). Music-Evoked Nostalgia: Affect, Memory, and Personality. *Emotion*, 10, 390-403.
- Batcho, K. I. (1995). Nostalgia: A psychological perspective. *Perceptual and Motor Skills*, 80, 131-143.
- Batcho, K. I. (1998). Personal Nostalgia, world view, memory, and emotionality. *Perceptual and Motor Skills*, 87, 411-432.
- Batcho, K. I. (2007). Nostalgia and the emotional tone and content of song lyrics. *American Journal of Psychology*, 120, 361-381.

- Best, J., & Nelson, E. E. (1985). Nostalgia and discontinuity: A test of the Davis hypothesis. *Sociology and Social Research*, 69, 221-233.
- Boym, S. (2002). The future of nostalgia. New York: Basic Books.
- Cappeliez, P., & O'Rourke, N. (2006). Empirical Validation of a Model of Reminiscence and Health in Later Life. *Journal of Gerontology*, 61, 237-244.
- Cavanaugh, J. C. (1989). I have this feeling about everyday memory aging. *Educational Gerontology*, 15, 597-605.
- Costa, P. Jr. & McCrae, R. (1984). Personality as a life-long determinant of psychological well-being. *Affective processes in adult development and aging*. Beverly Hills, CA: Sage Publications, 1984: 141-150.
- Davis, F. (1979). Yearning for yesterday: A sociology of nostalgia. New York: Free Press.
- Fodor, N. (1950). Varieties of Nostalgia. *Psychoanalytic Review*, 37, 25-38.
- Frankl, V. (1959). Man's Search for Meaning. New York, NY: Washington Square Press.
- Frijda, N. H. (1986). *The emotion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odbole, M. B., Shehryar, O., & Hunt, D. M. (2006). Does nostalgia depend on valence of past experience?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discontinuity hypothesis.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33, 630.
- Hair, J., Anderson, R., Tatham, R., & Black, W. (1994). *Multivariate Data Analysis with Readings*. Fourth Edition. Prentice Hall.
- Hepper, E., Ritchie, T., & Sedikides, C. and Wildschut, T. (2012). Odyssey's End: Lay Conceptions of Nostalgia Reflect Its Original Homeric Meaning. *Emotion*, 12, 102-119.
- Hertz, D. G. (1990). Trauma and nostalgia: New aspects of the coping of aging holocaust survivors. *Israeli Journal of Psychiatry and Related Sciences*, 27, 189-198.
- Hicks, J. A., Schlegel, R. J., & King, L. A. (2010). Social threats, happiness, and the dynamics of meaning in life judgment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6, 1305-1317.

- Holak, S. L., & Havlena, W. J. (1992). Nostalgia: An exploratory study of themes and emotions in the nostalgic experience.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19, 380-386.
- Holak, S. L., & Havlena, W. J. (1998). Feelings, fantasies, and memories: An examination of the emotional components of nostalgia.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42, 217-226.
- Johnson-Laird, P. N., & Oatley, K. (1989). The language of emotions: An analysis of semantic field. *Cognition and Emotion*, 3, 81-123.
- Larsen & Prizmic (2004). Wildschut
- McCann, W. H. (1941). Nostalgia: A review of the literature. *Psychological Bulletin*, 38, 165-182.
- Miller, J., & Pilkonis, P. (2006). Neuroticism and affective instability: The same or different?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63, 839-845.
- Mills, M. A., & Coleman, P. G. (1994). Nostalgic memories in dementia: A case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38, 203-219.
- The New Oxford Dictionary of English. (1998). Oxford, England: Oxford University Press.
- Hart, C. M., Sedikides, C., Wildschut, T., Arndt, J., Routledge, C., & Vingerhoets, Ad, J. J. M. (2011). Nostalgic recollections of high and low narcissists.
- Juhl, J., Routledge, C., Arndt, J., Sedikides, C., & Wildschut, T. (2010). Fighting the future with the past: Nostalgia buffers existential threat.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4, 309-314.
- Kaplan, H. A. (1987). The Psychopathology of Nostalgia. *Psychoanalytic Review*, 74, 465-486.
- Kemper, T. (1987). How many emotions are there: Wedding the social and autonomic component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3, 263-289.
- Kleiner, J. (1977). On Nostalgia. In C. W. Socarides (Ed.), *The world of emotions* (pp. 471-498).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y Press.
- Mather, M. (2006). Why memories may become more positive as people age. In B. Uttil, N. Ohta, & A. Sieggenthale (Eds.), *Memory and Emotion: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s*.

- McAdams, D. (2001). The psychology of life stories.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5, 100-122.
- Ortony, A., Clore, G. L., & Collins, A. (1988). The cognitive structure of emotions.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reacher, K. J., & Hayes, A. F. (2004). SPSS and SAS procedures for estimating indirect effects in simple mediation models. *Behavior Research Methods, Instruments, & Computers*, 36, 717-731.
- Ritchie, T. D., Skowronski, J. J., Wood, S. E., Walker, W. R., Vogl, R. J., & Gibbons, J. A. (2006). Event Self-importance, event rehearsal, and the fading affect bias in autobiographical memory. *Self and Identity*, 5, 172-195.
- Ritchie, T. D., Skowronski, J. J., Walker, W. R., & Wood, S. E. (2006). Comparing two perceived characteristics of autobiographical memory: Memory detail and accessibility. *Memory*, 14, 471-485.
- Routledge, C., Arndt, J., Sedikides, C., & Wildschut, T. (2008). A blast from the past: The terror management function of nostalgia.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4, 132-140.
- Routledge, C., Arndt, J., Wildschut, T., Sedikides, C., and Hart, C., Juhl, J., Vingerhoets, A. J. J. M., & Schlotz, W. (2011). The Past makes the Present Meaningful: Nostalgia as an existential resour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1, 638-652.
- Schimmack, U. (2005). Response latencies of pleasure and displeasure ratings: Further evidence for mixed feelings. *Cognition and Emotion*, 19, 671-691.
- Sedikides, C., Wildschut, T., & Baden, D. (2004). Nostalgia: Conceptual issues and existential functions. In J. Greenberg, S. Koole, & T. Pyszczynski (Eds.), *Handbook of experimental existential psychology* (pp. 200-214).
- Sedikides, C., Wildschut, T., Arndt, J., & Routledge, C. (2008). Nostalgia: Past, present, and future.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7, 304-307.

- Sedikides, C., Wildschut, T., Routledge, C., Arndt, J., & Zhou, X. (2009). Buffering acculturative stress and facilitating cultural daptation: Nostalgia as a psychological resource. In R. S. Wyer, Jr., C.-Y. Chiu, & Y.-Y. Hong (Eds.), *Understanding Culture, Theory, research, and application* (pp. 361-378). New York, NY: Psychology Press.
- Shaver, P., Schwartz, J., Kirson, D., & O'Connor, C. (1987). Emotion Knowledge: Further exploration of a prototype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1061-1086.
- Steele, C. M., Spencer, S. J., & Lynch, M. (1993). Self-image resilience and dissonance: The role of affirmational resourc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4, 885-896.
- Stephan, E., Sedikides, C., Wildschut, T., Routledge, C., Zhou, X., Kang, L., & Vingerhoets, A. J. J. M. (2011). Nostalgia regulates avoidance and approach motivation. Manuscript submitted for publication.
- Verplanken, B. (2012). When bittersweet turns sour: Adverse effects of nostalgia on habitual worrier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2, 285-289.
- Vess, M., Arndt, J., Routledge, C., Sedikides, C., & Wildschut, T. (2008). Nostalgia as a resource for the self. *Self and Identity*.
- Wildschut, T. and Sedikides, C., Arndt, J., & Routledge, C. (2006). Nostalgia: Content, Triggers, Func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1, 975-993.
- Wildschut, T., Sedikides, C., Routledge, C., Arndt, J., & Cordaro, F. (2010). Nostalgia as a repository of social connectedness: The role of attachment-related avoida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8, 573-586.
- Zhou, X., Fu, B., Wildschut, T., Sedikides, C., Luo, H., & Feng, C. (2011) Nostalgia: The gift that keeps on giving.
- Zhou, X., Sedikides, C., Wildschut, C., & Gao, D.-G. (2008). Counteracting Loneliness: On the restorative function of nostalgia. *Psychological Science*, 19, 1023-1029.

부 록

부록 1. 정서 척도

부록 2. 노스텔지어의 정적, 부정 기능 척도

부록 3. 노스텔지어의 긍정적 기능 척도

부록 4. UCLA 외로움 척도

부록 5. Big 5 성격 측정 척도(IPIP)

부록 6. 우울 척도(BDI)

부록 7. 주관적 안녕감 척도(SWB)

부록 8. 삶의 만족도 척도(SWLS)

부록 9. 자존감 척도 (RESE)

부록 1. 정서 척도

노스텔지어를 불러일으키는 경험을 회상하는 지금 이 순간에 어떤 감정을 느끼십니까?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매우 그렇다
화가 난다.	0	1	2	3	4
슬프다.	0	1	2	3	4
편안하다.	0	1	2	3	4
짜증난다.	0	1	2	3	4
두렵다.	0	1	2	3	4
서글프다.	0	1	2	3	4
서운하다.	0	1	2	3	4
불안하다.	0	1	2	3	4
기쁘다.	0	1	2	3	4
평온하다.	0	1	2	3	4
섬섬하다.	0	1	2	3	4
즐겁다.	0	1	2	3	4

부록 2. 노스텔지어의 정적. 부정 기능 척도

노스텔지어를 불러일으키는 경험을 회상하는 것이 본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답해주세요.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정말 행복하다.	0	1	2	3	4
슬픔을 느낀다.	0	1	2	3	4
사랑 받는 느낌이다.	0	1	2	3	4
나를 외롭게 만든다.	0	1	2	3	4
자존감을 높여준다.	0	1	2	3	4
상실감을 느낀다.	0	1	2	3	4
즐거웠던 시간을 떠올린다.	0	1	2	3	4
과거를 지나치게 생각하게 된다.	0	1	2	3	4
내 본연 모습을 성장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0	1	2	3	4
내가 후회하는 것을 회상시킨다.	0	1	2	3	4

부록 3. 노스텔지어의 긍정적 기능 척도

노스텔지어를 불러일으키는 경험을 회상하는 것이 본인에게 어떤 감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답해주세요.

노스텔지어를 불러일으키는 경험을 회상 할 때...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	0	1	2	3	4
기분이 좋아지게 만든다.	0	1	2	3	4
활동적으로 느끼게 만든다.	0	1	2	3	4
차분함을 느끼게 만든다.	0	1	2	3	4
내 자신을 더욱 가치 있는 사람 처럼 느끼게 만든다.	0	1	2	3	4
내가 다수의 좋은 면들을 갖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든다.	0	1	2	3	4
내 자신에 대해 좋게 느끼게 만든다.	0	1	2	3	4
내 자신을 더 좋아하게 만든다.	0	1	2	3	4
내가 사랑 받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든다.	0	1	2	3	4
사랑하는 사람(들)과 연결 된 것 처럼 느끼게 만든다.	0	1	2	3	4
내가 보호 받는 것처럼 느끼게 만든다.	0	1	2	3	4
내가 다른 이들을 믿을 수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든다.	0	1	2	3	4
삶은 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든다.	0	1	2	3	4
삶이 의미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든다.	0	1	2	3	4
삶에 목적이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든다.	0	1	2	3	4
삶에는 더 큰 목적이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든다.	0	1	2	3	4

부록 4. UCLA 외로움 척도

모든 질문에 대해 귀하의 외로운 느낌이나 생각에 대해서 평가해주세요.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는 내 주위 사람들과 기분이 통한다.	0	1	2	3	4
나는 사람들과 교제가 부족하다.	0	1	2	3	4
나는 의지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0	1	2	3	4
나는 혼자라고 느끼지 않는다.	0	1	2	3	4
나는 내 친구들 모임에 속해있다.	0	1	2	3	4
나는 내 주위 사람들과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0	1	2	3	4
나는 더 이상 아무하고도 가깝지 않다.	0	1	2	3	4
주위 사람들은 나의 관심사와 생각들을 나와 함께 나누지 않는 것 같다.	0	1	2	3	4
나는 외향적이다.	0	1	2	3	4
나는 가깝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	0	1	2	3	4
나는 혼자 남겨진 느낌이 든다.	0	1	2	3	4
사람들과 나와의 교제는 피상적이다.	0	1	2	3	4
어느 누구도 나를 가장 잘 알지 못한다.	0	1	2	3	4
나는 사람들로부터 소외감을 느낀다.	0	1	2	3	4
내가 교제를 원할 때 나는 친구 들을 사귄 수 있다.	0	1	2	3	4
나를 진심으로 이해해 주는 사람 들이 있다.	0	1	2	3	4
나는 소외된 것 같아 슬픈 느낌이 든다.	0	1	2	3	4
사람들은 내 주위에 있는 것이지 진정 나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0	1	2	3	4
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 는 사람들이 있다.	0	1	2	3	4
나는 의지할 사람들이 있다.	0	1	2	3	4

부록 5. Big 5 성격 측정 척도(IPIP)

아래 문항을 읽고 각 문항의 내용이 본인의 평소 모습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답해주세요.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는 모임에서 분위기를 주도하는 인물이다.	0	1	2	3	4
거의 언제나 느긋한 편이다.	0	1	2	3	4
여러 사람들 사이에서도 위축되지 않는다.	0	1	2	3	4
우울함을 거의 느끼지 않는다.	0	1	2	3	4
대화를 먼저 시작하는 편이다.	0	1	2	3	4
쉽게 불안해진다.	0	1	2	3	4
사교 모임에서 여러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눈다.	0	1	2	3	4
걱정을 많이 하는 편이다.	0	1	2	3	4
다른 사람의 시선이 나에게 집중되는 것을 꺼려하지 않는다.	0	1	2	3	4
마음이 쉽게 심란해진다	0	1	2	3	4
말을 많이 하지 않는 편이다.	0	1	2	3	4
화를 잘 내는 편이다.	0	1	2	3	4
모임에서 나를 잘 드러내지 않는다.	0	1	2	3	4
기분의 변화가 심하다.	0	1	2	3	4
사람들과 별로 할 이야기가 없다.	0	1	2	3	4
감정의 기복이 심한 편이다.	0	1	2	3	4
나에게 주의가 집중되는 것이 싫다.	0	1	2	3	4
쉽게 짜증이 난다.	0	1	2	3	4
모르는 사람들과 있을 때 과묵해진다.	0	1	2	3	4
자주 우울해진다.	0	1	2	3	4

부록 6. 우울 척도(BDI)

이 질문지는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내용은 모두 네 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들을 잘 읽고 **요즘 (지난 일주일 동안)**의 자신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문장 하나를 선택하여 해당 번호 위에 표시해주십시오. 오래 생각하실 필요 없으며, **정답은 없으니**, 솔직하게 느낌 그대로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1	(0) 나는 전혀 슬프지 않다. (1) 나는 슬프지 않다. (2) 나는 조금 슬프다. (3) 나는 상당히 슬프고 기운을 낼 수 없다. (4) 나는 너무나도 슬프고 불행해서 도저히 견딜 수 없다.
2	(0) 나는 앞날에 대해 전혀 낙심하지 않는다. (1) 나는 앞날에 대해 별로 낙심하지 않는다. (2) 나는 앞날에 대해서 그다지 용기가 나지 않는다. (3) 나는 앞날에 대해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상당히 느낀다. (4) 나는 앞날이 아주 절망적이고 나아질 가망이 전혀 없다고 느낀다.
3	(0) 나는 전혀 실패자라고 느끼지 않는다. (1) 나는 그다지 실패자라고 느끼지 않는다. (2) 나는 보통사람들보다 더 많이 실패한 것 같다. (3) 내가 살아온 과거를 되돌아보면, 실패투성이인 것 같다. (4) 나는 인간으로서 완전한 실패자라고 느낀다.
4	(0) 나는 항상 일상생활에서 만족하고 있다. (1) 나는 예전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만족하고 있다. (2) 나의 일상생활은 예전처럼 즐겁지 않다. (3) 나는 요즘에는 어떤 것에서도 별로 만족을 얻지 못한다. (4) 나는 모든 것이 다 불만스럽고 싫증난다.
5	(0) 나는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1) 나는 특별히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2) 나는 죄책감을 느낄 때가 많다. (3) 나는 죄책감을 느낄 때가 아주 많다. (4) 나는 항상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
6	(0) 나는 벌을 받고 있다고 전혀 느끼지 않는다. (1) 나는 벌을 받고 있다고 느끼지 않는다. (2) 나는 내가 어찌면 벌을 받을지도 모른다고 느낀다. (3) 나는 벌을 받을 것 같다. (4) 나는 지금 내가 벌을 받고 있다고 느낀다.

7	(0) 나는 내 자신에 대해 전혀 실망하지 않는다. (1) 나는 내 자신에 대해 실망하지 않는다. (2) 나는 내 자신에 대해 실망하고 있다. (3) 나는 내 자신에게 화가 난다. (4) 나는 내 자신을 증오한다.
8	(0) 나는 다른 사람 못지않게 좋은 면이 있다. (1)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한 것 같지는 않다. (2) 나는 나의 약점이나 실수에 대해서 내 자신을 탓하는 편이다. (3) 내가 한 일이 잘못되었을 때는 언제나 나를 탓한다. (4)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잘못된 일은 다 내 탓이다.
9	(0) 나는 전혀 자살을 생각하지 않는다. (1) 나는 자살 같은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 (2) 나는 자살할 생각을 가끔 하지만, 실제로 하지는 않을 것이다. (3) 나는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자주 든다. (4) 나는 기회만 있으면 자살하겠다.
10	(0) 나는 항상 울지 않는다. (1) 나는 평소보다 더 울지는 않는다. (2) 나는 전보다 더 많이 운다. (3) 나는 요즈음 항상 운다. (4) 나는 전에는 울고 싶을 때 울 수 있었지만 요즈음은 울래야 울 기력조차 없다.
11	(0) 나는 항상 전혀 짜증을 내지 않는다. (1) 나는 요즈음 평소보다 더 짜증을 내는 편은 아니다. (2) 나는 전보다 쉽게 짜증이 나고 귀찮아진다. (3) 나는 요즈음 항상 짜증을 내고 있다. (4) 전에는 짜증스럽던 일에 요즘은 너무 지쳐서 짜증조차 나지 않는다.
12	(0) 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항상 있다. (1)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 (2) 나는 전보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줄었다. (3) 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어졌다. (4) 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완전히 없어졌다.
13	(0) 나는 항상 결정을 잘 내린다. (1) 나는 평소처럼 결정을 잘 내린다. (2) 나는 결정을 미루는 때가 전보다 더 많다. (3) 나는 전에 비해 결정 내리는 데에 더 큰 어려움을 느낀다. (4) 나는 더 이상 아무 결정도 내릴 수가 없다.
14	(0) 나는 내 모습이 항상 좋다고 생각한다. (1) 나는 전보다 내 모습이 나빠졌다고 느끼지 않는다. (2) 나는 나이 들어 보이거나 매력 없이 보일까봐 걱정한다. (3) 나는 내 모습이 매력 없게 변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든다. (4) 나는 내가 추하게 보인다고 믿는다.

15	(0) 나는 항상 일을 잘 할 수 있다.	
	(1) 나는 전처럼 일을 할 수 있다.	
	(2) 어떤 일을 시작하는 데에 전보다 더 많은 노력이 든다.	
	(3) 무슨 일이든 하려면 나 자신을 매우 심하게 채찍질해야만 한다.	
16	(4) 나는 전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	
	(0) 나는 평소에 잠을 아주 잘 잔다.	
	(1) 나는 평소처럼 잠을 잘 수 있다.	
	(2) 나는 전만큼 잠을 자지 못한다.	
17	(3) 나는 전보다 한두 시간 일찍 깨고 다시 잠들기가 어렵다.	
	(4) 나는 평소보다 몇 시간이나 일찍 깨고, 한 번 깨면 다시 잠들 수 없다.	
	(0) 나는 평소에 전혀 피곤하지 않다.	
	(1) 나는 평소보다 더 피곤하지는 않다.	
18	(2) 나는 전보다 더 쉽게 피곤해진다.	
	(3) 나는 무엇을 해도 피곤해진다.	
	(4) 나는 너무나 피곤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0) 나의 식욕은 정말 항상 좋다.	
19	(1) 내 식욕은 평소와 다름없다.	
	(2) 나는 요즈음 전보다 식욕이 좋지 않다.	
	(3) 나는 요즈음 식욕이 많이 떨어졌다.	
	(4) 나는 요즈음에는 전혀 식욕이 없다.	
20	(0) 요즈음 나는 몸무게가 전혀 줄지 않았다.	
	(1) 요즈음 나는 몸무게가 별로 줄지 않았다.	
	(2) 나는 전보다 몸무게가 2kg가량 줄었다.	
	(3) 나는 전보다 몸무게가 5kg가량 줄었다.	
21	(4) 나는 전보다 몸무게가 7kg가량 줄었다.	
	* 나는 현재 음식 조절로 체중을 줄이고 있는 중이다.(예, 아니오)	
	(0) 나는 나의 건강에 대해서 아주 확신하고 있다.	
	(1) 나는 건강에 대해 전보다 더 염려하고 있지는 않다.	
22	(2) 나는 여러가지 통증, 소화불량, 변비 등과 같은 신체적 문제로 걱정하고 있다.	
	(3) 나는 건강이 염려되어 다른 일은 생각하기 힘들다.	
	(4) 나는 건강이 너무 염려되어 다른 일은 아무 것도 생각할 수 없다.	
	(0) 나는 요즈음 성(性)에 대한 관심에 변화가 전혀 없다.	
23	(1) 나는 요즈음 성(性)에 대한 관심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2) 나는 전보다 성(性)에 대한 관심이 줄었다.	
	(3) 나는 전보다 성(性)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줄었다.	
	(4) 나는 성(性)에 대한 관심을 완전히 잃었다.	

부록 7. 주관적 안녕감 척도(SWB)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에게 주어진 상황은 내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살아 온 내 인생을 돌이켜 볼 때 현재의 결과에 만족한다	1	2	3	4	5
남들과 친밀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다	1	2	3	4	5
매일매일 해야 하는 일들이 힘들다	1	2	3	4	5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을 뿐, 장래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	1	2	3	4	5
매일의 생활에서 내가 해야 할 책임들을 잘 해내고 있다	1	2	3	4	5
나 자신과 인생살이에 자극을 줄만한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내 성격의 거의 모든 면을 좋아한다	1	2	3	4	5
나는 강한 의견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편이다	1	2	3	4	5
많은 면에서, 내가 성취한 것에 대해 실망스럽게 느낀다	1	2	3	4	5
사람들은 나를 너그럽고, 필요하면 나에게 기꺼이 시간도 내어주는 사람으로 생각한다	1	2	3	4	5
내 의견이 비록 다른 여러 사람들의 의견과 반대되는 경우에도, 나는 내 의견이 옳다고 확신한다	1	2	3	4	5
다른 사람들과 다정하고 신뢰 깊은 관계를 별로 경험하지 못했다	1	2	3	4	5
나는 인생목표를 가지고 살아간다	1	2	3	4	5
나에게 있어서 삶은 끊임없이 배우고, 변화하고, 성장하는 과정이었다	1	2	3	4	5
나는 가끔 인생에서 내가 할 일은 다 한 것 같은 생각이 든다	1	2	3	4	5
내 인생을 크게 개선하거나 바꾸겠다는 생각은 오래 전에 버렸다	1	2	3	4	5
내 스스로 정한 기준에 의해 내 자신을 평가하지, 남들의 기준에 의해 평가하지 않는다	1	2	3	4	5

부록 8. 삶의 만족도 척도(SWLS)

※ 아래의 문항을 읽고 각 문항이 여러분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표시하여 주십시오.

문항	전혀 없었다	거의 없었다	가끔 있었다	자주 있었다	매우 자주 있었다
전반적으로 나의 삶은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삶에 가깝다.	1	2	3	4	5
내 삶의 조건들은 아주 훌륭하다.	1	2	3	4	5
나는 나의 삶에 만족한다.	1	2	3	4	5
지금까지 나는 삶에서 원했던 중요한 것들을 얻었다.	1	2	3	4	5
나의 삶을 다시 살 수 있다 해도, 나는 거의 아무 것도 바꾸지 않을 것이다.	1	2	3	4	5

부록 9. 자존감 척도 (RESE)

번호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만큼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0	1	2	3	4
2	나는 좋은 자질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다.	0	1	2	3	4
3	대체로 나는 내가 실패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0	1	2	3	4
4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만큼 일을 잘 할 수 있다.	0	1	2	3	4
5	나는 자랑할 만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다.	0	1	2	3	4
6	나는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0	1	2	3	4
7	대체로 나 자신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	0	1	2	3	4
8	나 자신을 좀 더 존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0	1	2	3	4
9	나는 때때로 내가 정말 쓸모 없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0	1	2	3	4
10	때때로 나에게 좋은 점이라곤 전혀 없다는 생각이 든다.	0	1	2	3	4

Abstract

An Exploration into Content and Functions of Nostalgia

Pu Lum Kim

Department of Psycholog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this study psychological aspects of nostalgia were explored. In specific, content, trigger, and function of nostalgia were examined, along with the relationship of nostalgia as a positive psychological resource as well as personality and adjustment variables.

In study 1, the content, trigger, and function of nostalgia were explored at the preliminary level across various age ranges with the State Functions of Nostalgia Scale (Hepper et al., 2012) and the items that measure the content and trigger of nostalgia (Wildschut et al., 2006). As a result, nostalgia was found to be a self-relevant emotion while being highly sociable in nature. In addition, the main trigger of nostalgia was found to be similar events from one's past experiences.

Moreover, the four components of the State Functions of Nostalgia Scale (Hepper et al., 2012) – positive self-regard, positive affect, social connectedness, and meaning in life – were discovered to compose the positive function of nostalgia. As the

result of examining the age and gender differences in the experience of the positive function of nostalgia, men had a significantly higher mean than women,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wo age groups of 10~30 years and 31~70 years.

In study 2, both of the positive function and negative function of nostalgia were explored. Also, nostalgia as an emotional state was examined. Further, the relationships that positive function and negative function of nostalgia have with adjustment and personality variables, respectively, were investigated. Moreover, the mediating effects of the positive function of nostalgia in affect-regulation were explored.

As a result, nostalgia was found to have more of positive function than negative function. In light of nostalgia as a mixed emotion, it was found that nostalgia includes both of positive affect and negative affect and that positive affect is the predominant emotion, while low-arousal negative emotion and high-arousal negative emotion are the second and the third in order, respectively.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men and women in regards to the function and emotional content of nostalgia; nevertheless, it was found that the age 31-70 years group has higher levels of positive function and positive affect of nostalgia than the age 10-30 years group. Finall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unction of nostalgia and the adjustment and personality variables, positive function was found to have positive correlations with extroversion, psychological well-being, life satisfaction, and self-esteem, while negative function was discovered to have positive correlations with loneliness, neuroticism, and depression. In this vein, the mediating effects of the positive function of nostalgia in the relationship between lonelines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life satisfaction, and self-esteem, respectively,

were found to be significant. Thus, the positive function of nostalgia can be regarded as an effective affect-regulation strategy in dealing with negative affect.

Keywords: nostalgia, positive function and negative function, positive affect and negative affect, adjustment and personality variables, the mediating effect of the positive function of nostalgia.

Student Number: 2010-20107